nabo Economic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2017년 11월호 통권 제61호

CONTENTS

Ⅰ. 경제동향
Ⅱ.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
Ⅲ. 최근 세계경제 회복의 특징과 지속성 분석
Ⅳ. 중국 사드관련 경제조치 영향과 향후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Economic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2017년 11월호 통권 제61호

Contents

Ⅰ. 경제동향 4

Ⅱ.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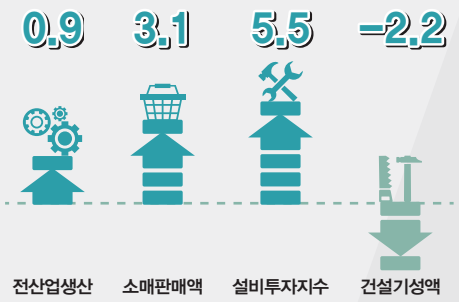
Ⅲ. 최근 세계경제 회복의 특징과 지속성 분석 32

Ⅳ. 중국 사드관련 경제조치 영향과 향후 과제 45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내 수

(단위: 전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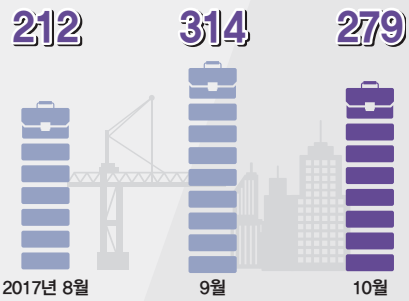


※ 주: 9월기준

건설기성액을 제외한 내수는 **전월대비 반등**

고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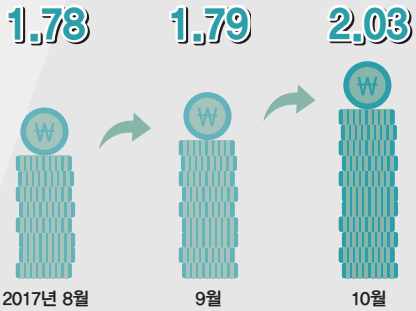
(단위: 천명)



10월 취업자수는 건설업, 공공부문 서비스업에서 **증가**

국고채 금리

(단위: %)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 3/4분기 높은
국내 경제성장률 실적 등으로 **전월대비 급등**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연락처
788-3775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건설투자를 제외한 내수가 개선

⊙ 10월 중 수출은 추석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4.5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율(7.1%)은 낮아졌으나 일평균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호조 지속

– 일평균수출액(억달러): ('17. 8월)19.6 → (9월)23.5 → (10월)25.0

⊙ 9월 중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월의 부진에서 벗어나 큰 폭 반등하였으며, 10월 소비자심리지수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힘입어 전월보다 상승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17. 7월)1.0 → (8월)-0.1 → (9월)0.9

– 소매판매(전월대비, %): ('17. 7월)0.2 → (8월)-0.9 → (9월)3.1

– 소비자심리지수: ('17. 8월)111.2 → (9월)107.7 → (10월)109.2

⊙ 다만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액이 2개월 연속 위축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17. 7월)2.8 → (8월)-1.7 → (9월)-2.2

10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0%를 하회

⊙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가격하락 등 농축수산물가격 안정으로 전년동월대비 2개월 연속 하락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17. 8월)2.6 → (9월)2.1 → (10월)1.8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가격 제외)는 전월(1.4%)보다 0.2%p 높아진 전년동월대비 1.6% 상승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냄

⊙ 10월 중 원/달러 환율은 한반도 긴장 완화, 외국인 국내주식투자 증가 등으로 5월 이후 5개월 만에 1,130원대를 하회

– 원/달러 환율(원): ('17. 8월)1,131 → (9월)1,133 → (10월)1,129

⊙ 10월 중 국고채금리는 높은 3/4분기 국내경제성장률 실적,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전월(1.79%)에 비해 24bp 급등한 2.03%를 기록

– 국고채금리(3년만기, %): ('17. 8월)1.78 → (9월)1.79 → (10월)2.03

[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Q	1Q	2Q	3Q	8월	9월	10월
전산업생산	1.9	2.9	3.4 (0.3)	3.9 (1.3)	2.7 (–0.3)	3.9 (1.3)	2.5 (–0.1)	7.4 (0.9)	–
광공업생산	–0.3	1.0	2.7 (0.6)	3.7 (1.6)	0.5 (–2.3)	3.5 (0.5)	2.3 (0.1)	8.4 (0.1)	–
서비스업생산	2.9	3.0	2.1 (–0.3)	2.6 (0.9)	2.3 (0.6)	3.2 (1.4)	2.1 (0.1)	5.4 (1.3)	–
소매판매액	4.1	4.3	2.5 (2.1)	1.9 (–0.5)	1.7 (1.2)	4.3 (1.1)	0.9 (–0.9)	8.3 (3.1)	–
설비투자지수	6.3	–1.3	5.9 (7.9)	18.1 (5.6)	17.7 (4.4)	20.7 (–0.3)	12.5 (–0.7)	25.2 (5.5)	–
건설기성액(불변)	5.0	15.5	17.7 (4.1)	17.9 (5.9)	13.6 (–1.1)	12.5 (0.0)	8.3 (–1.7)	16.1 (–2.2)	–
수출(통관)	–8.0	–5.9	1.8	14.7	16.7	24.0	17.3	35.0	7.1
수입(통관)	–16.9	–6.9	4.1	24.0	18.8	17.8	15.3	22.6	7.4
경상수지(억달러)	1,059	987	255	194	168	255	60.6	122.1	–
실업률	3.6	3.8	3.2	4.3	3.9	3.5	3.6	3.4	3.2
취업자수(천명)	337	289	302	360	367	279	212	314	279
소비자물가	0.7	1.0	1.5	1.4	1.9	2.3	2.6	2.1	1.8
원/달러환율	1,132	1,160	1,159	1,153	1,130	1,132	1,131	1,133	1,129
국고채금리(3년)	1.79	1.44	1.55	1.67	1.68	1.77	1.78	1.79	2.03

주: 1)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과 광공업 생산이 늘어나면서 전월에 비해 증가

⊙ 9월 중 전산업생산은 건설업에서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광공업 생산도 늘어나 전월대비 0.9% 증가

– 광공업생산은 전기·가스·수도사업(–4.2%)에서 감소하였으나, 제조업(0.3%)과 광업(0.8%)에서 늘어나 전월대비 0.1% 증가(전산업생산 기여도 0.0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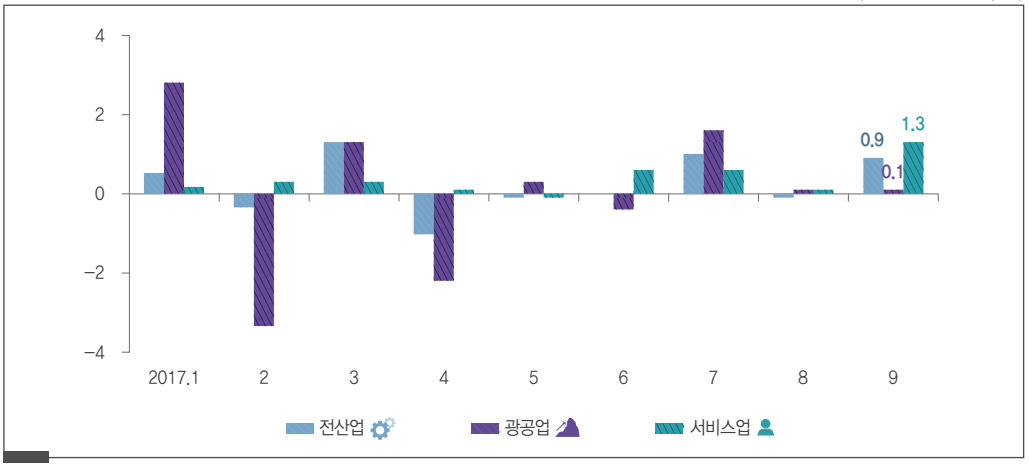
– 서비스업생산은 보건·사회복지(3.5%), 음식·숙박업(3.0%), 도소매(2.8%) 등이 늘어나 1.3% 증가(전산업생산 기여도 0.69%p)

– 반면 건설업은 전월대비 2.2% 감소(전산업생산 기여도 –0.16%p)

⊙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0.2%p 하락한 71.8%를 나타냄

[그림 1]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단위: 전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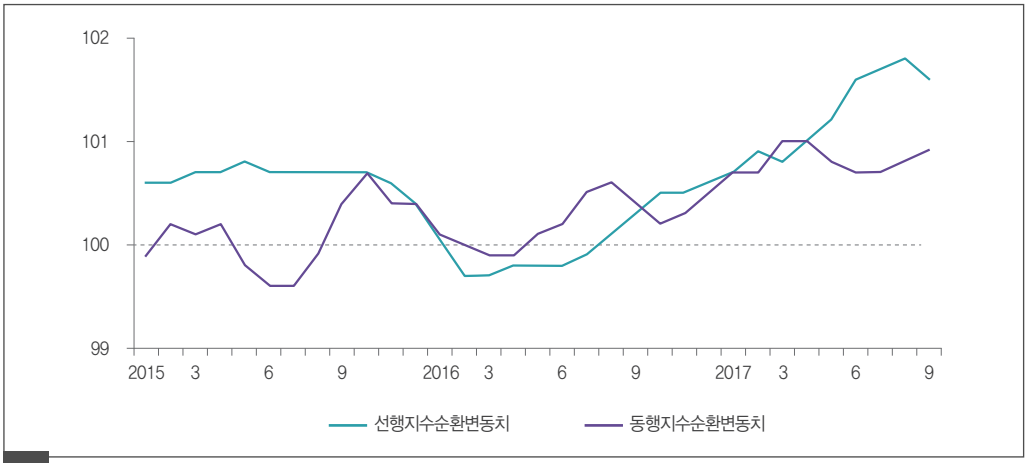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9월 중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나,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감소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0.1p 상승한 100.9를 나타냄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소비자기대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등이 감소하는 등 4월 이후 6개월 만에 전월대비 0.2p하락한 101.6을 보임

[그림 2] 선행지수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추이



자료: 통계청

소매판매는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 소비가 모두 늘며 증가세로 전환

⊙ 9월 중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3.1% 증가하며 전월(–0.9%)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

–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 %): ('17. 7월)0.2 → (8월)–0.9 → (9월)3.1

–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7. 7월)3.6 → (8월)0.9 → (9월)8.3

⊙ 9월 중 내구재 판매는 승용차판매가 전월대비 0.2%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통신기기판매가 증가로 전환되면서 전월대비 2.4% 증가

– 통신기기는 9월 출시된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가 크게 늘며 증가세로 전환

– 통신기기 증가율(전월대비, %): ('17. 8월)–7.3 → (9월)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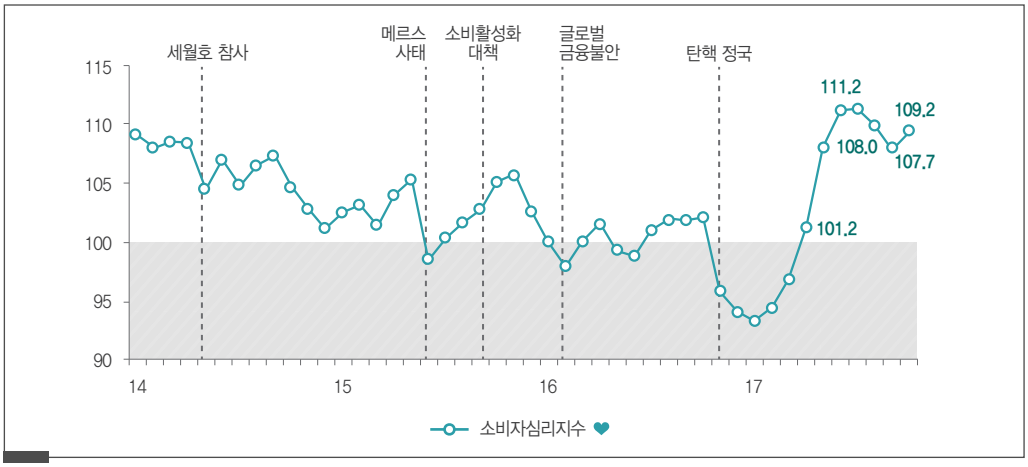
⊙ 비내구재는 10월 명절과 장기휴가를 앞둔 명절선물 및 음식료품 수요 증가로 2016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비내구재판매 증가율(전월대비, %): ('17. 7월)–0.4 → (8월)–0.6 → (9월)4.1

⊙ 미국과 북한간 갈등 등으로 인해 2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비자심리지수는 10월 중 북한리스크 완화 및 경기개선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로 반전

– 소비자심리지수: ('17. 7월)111.2 → (8월)109.9 → (9월)107.7 → (10월)1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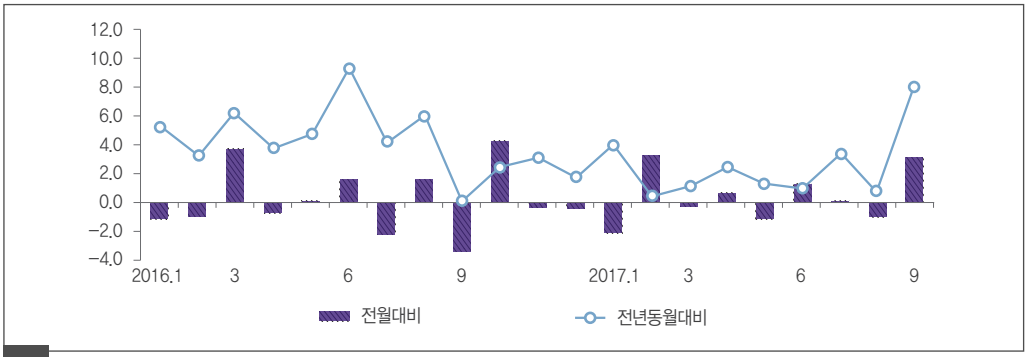
[그림 3]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4]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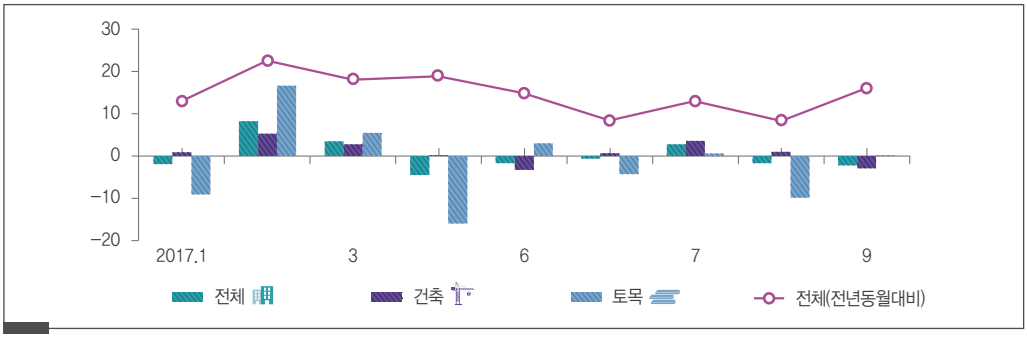
건설투자는 4월 이후 둔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축의 부진으로 전월대비 감소폭 확대

⊙ 2017년 9월 건설기성액(불변)은 전월(−1.7%)에 0.5%p 하락한 2.2% 감소

- 전년동월대비로는 16.1%를 나타내어 전월(8.3%)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이는 전년동월에 낮은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
- 건설기성(전월대비, %): ('17. 6월)−0.6 → (7월)2.8 → (8월)−1.7 → (9월)−2.2
- 건설기성(전년동월대비, %): ('17. 6월)8.4 → (7월)13.0 → (8월)8.3 → (9월)16.1

[그림 5] 공종별 건설기성액 추이

(단위: %)



주: 선그래프는 전년동월비, 그 외는 전월대비
자료: 통계청

⊙ 건축은 강도 높은 주택시장안정대책(6.19대책, 8.2대책)에 따른 주택금융억제조치(DIT, LTV 축소) 시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전월대비 2.9% 감소

- 다만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창고, 공장 등 상업·공업용 비주거용 건축이 증가세로 반전하여 건축의 감소폭을 완화

– 건축(전월대비, %): ('17. 6월)0.7 → (7월)3.6 → (8월)1.0 → (9월)-2.9

– 상업용/공업용 건축(전년동월대비, %): ('17. 8월)-11.4/-18.7 → ('17. 9월)16.5/18.0

⊙ 토목은 도로·철도 부문의 지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플랜트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보합(0.2% 증가)

– 토목(전월대비, %): ('17. 6월)-4.3 → (7월)0.6 → (8월)-9.9 → (9월)0.2

– 경상플랜트(전년동월대비, %): ('17. 6월)13.5 → (7월)1.8 → (8월)10.3 → (9월)14.2

⊙ 향후에도 주택시장안정대책과 가계부채종합대책(10.24대책)의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둔화되고, 정부 SOC투자 부진으로 건설투자의 둔화세는 지속될 전망

– 건설수주가 1/4분기, 2/4분기 각각 전분기대비 2.0%, 1.3% 증가에 그쳤으나 3/4분기에는 9.6% 감소하여 건설투자의 둔화를 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호조에 기인하여 큰 폭 증가전환

⊙ 9월 중 설비투자지수(전월대비)는 운송장비(-3.8%)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9.0%) 투자가 호조를 보여 전월대비 5.5% 증가

– 설비투자지수(전월대비, %): ('17. 7월)-5.3 → (8월)-0.7 → (9월)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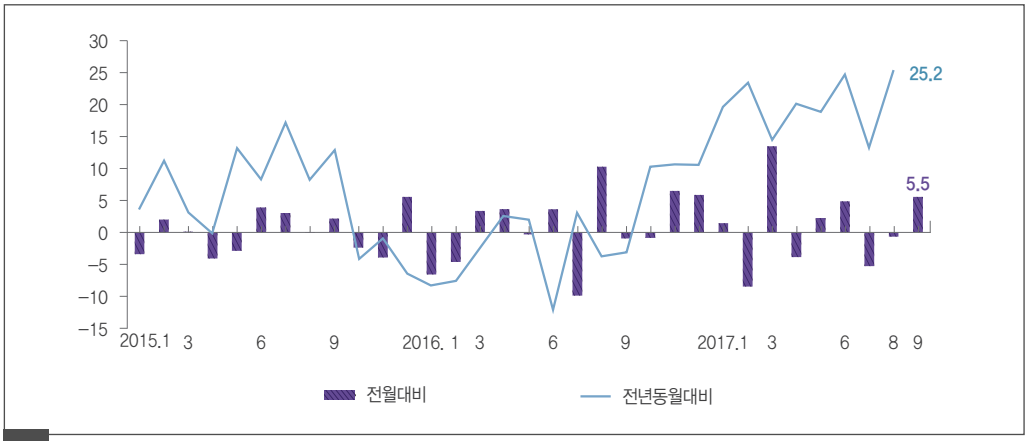
– 기계류(전월대비, %): ('17. 7월)-6.1 → (8월)-3.1 → (9월)9.0

– 운송장비(전월대비, %): ('17. 7월)-2.5 → (8월)5.8 → (9월)-3.8

– 전년동월대비로는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기저효과가 소멸되는 11월부터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그림 6] 설비투자지수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 기계류내수출하와 국내기계수주 모두 3개월 연속 감소하여 향후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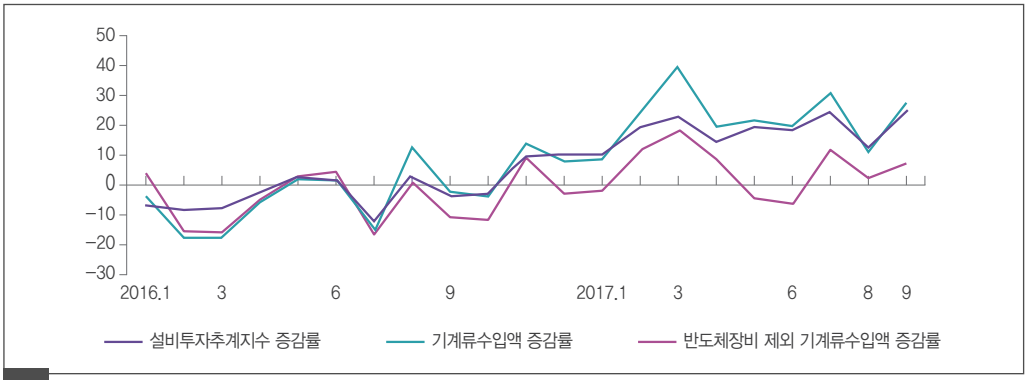
-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대비, %): ('17. 7월)-3.2 → (8월)-1.5 → (9월)-3.8
- 국내기계수주(전월대비, %): ('17. 7월)-4.4 → (8월)-4.4 → (9월)-6.1

⊙ 9월 중 기계류수입액은 정밀기계(98.3%)를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가 지속되었고, 10월 중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10월까지는 두 자릿수 전년동월대비 설비투자증가율이 유지될 전망

- 기계류수입액(전년동월대비, %): ('17. 7월)31.2 → (8월)10.9 → (9월)27.8
-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17. 8월)51.2 → (9월)141.6 → (10월)70.4

[그림 7] 기계류수입액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무역협회 통계DB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로 증가율이 하락하였으나 일평균수출액과 수출단가는 전월보다 증가하여 수출 호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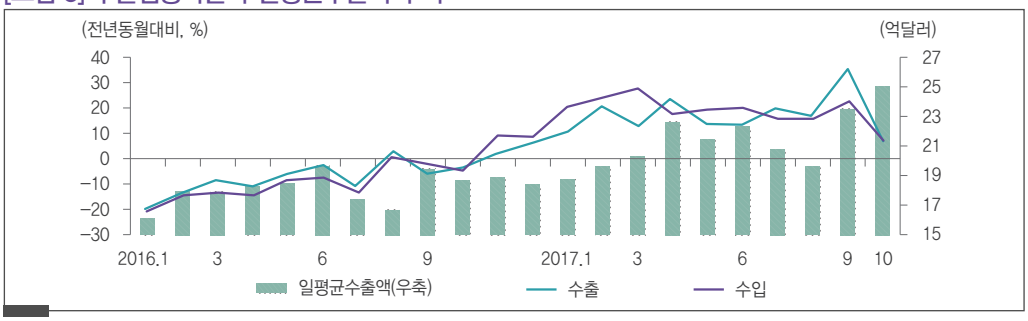
⊙ 10월 중 수출은 449.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4% 증가

- 수출은 금년 들어 9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해 왔으나 10월 중에는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4.5일 감소하면서 수출물량이 큰 폭 감소한 영향으로 처음 한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냄
- 조업일수(일): ('16. 10월)22.5 → ('17. 10월)18.0
- 수출물량증감률(전년동월대비, %): ('17. 8월)7.8 → (9월)17.4 → (10월)-9.1

⊙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수출액은 25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33.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출단가증가율 또한 전년동월대비 17.8% 증가

- 일평균수출액(억달러): ('17. 8월)19.6 → (9월)23.5 → (10월)25.0
- 수출단가증감률(전년동월대비, %): ('17. 8월)8.8 → (9월)15.0 → (10월)17.8

[그림 8] 수출입증가율과 일평균수출액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13대 주력 수출품목은 반도체가 역대 2위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7개 품목이 증가하였으며, 6개 품목은 감소

– 반도체는 D램과 NAND 현물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반도체 성수기 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69.6%(94.8억 달러) 증가

* D램 현물가격(DDR4 4Gb, 달러): ('17. 8월)3.57 → (9월)3.86 → (10월)4.72
* NAND 현물가격(64Gb, 달러): ('17. 8월)4.35 → (9월)4.26 → (10월)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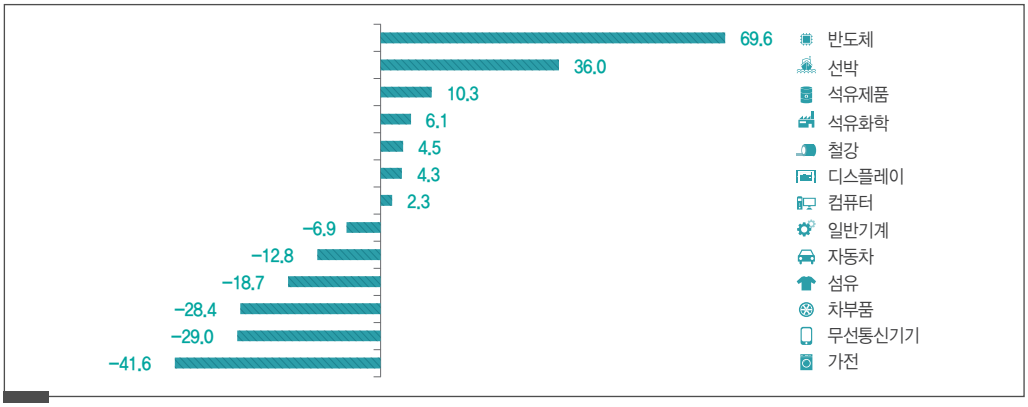
–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중국 환경규제에 따른 글로벌 공급 감소 등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10.3%와 6.1% 증가

– 철강은 중국 철강 내수 증가에 따른 저가 수출 감소로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고부가제품 중심 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5% 증가

– 반면 일반기계(−6.9%)가 해외설비수요 및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금년 중 처음으로 감소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가전, 무선통신기기, 차부품, 섬유, 자동차 등이 감소

[그림 9] 13대 주력품목별 수출증가율 추이(10월)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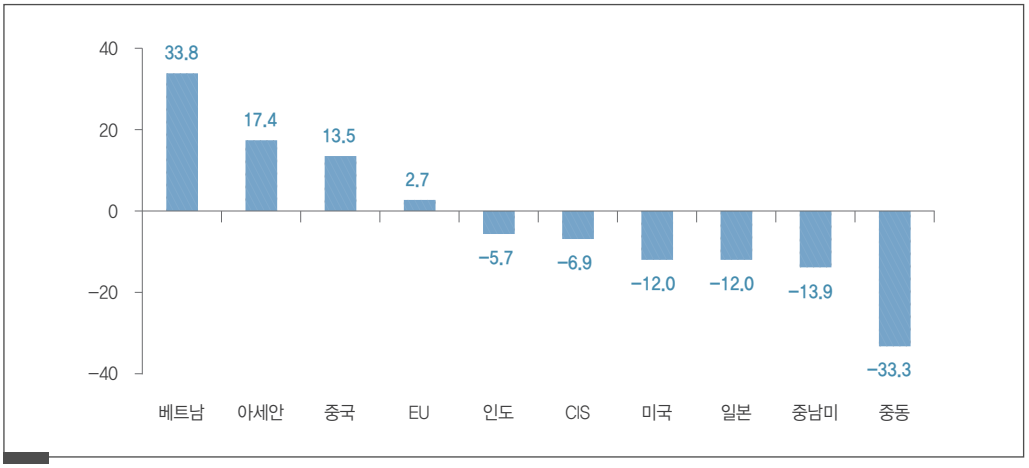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조업일수 감소로 EU를 제외한 선진국, 중남미, 중동 등 대부분 지역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베트남, 아세안, 중국 등 신흥국 수출은 증가

– 현지 제조업 경기가 호조세인 대베트남, 대아세안,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

– 반면 대미국, 대일본, 대중남미, 대중동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이 큰 가운데 품목별로는 자동차, 차부품,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감소로 전환

[그림 10]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10월)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10월 중 수입은 376.5억 달러로 자본재와 소비재가 감소했으나 1차산품과 중간재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4% 증가

– 석유·유연탄 등 원자재 중심의 1차산품(23.6%)과 중간재(8.5%)가 증가하였으나 자본재(−5.1%)와 소비재(−5.7%)는 감소

⊙ 10월 중 무역수지는 전월(135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73억 달러를 기록(69개월 연속 흑자)

– 2017년 1~10월 중 누적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826억 달러를 기록 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연중 최대치를 기록

⊙ 9월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80.7억 달러)에 비해 41.4억 달러 확대된 122.1억 달러를 나타냄

– 상품수지는 수출증가율(25.5%)이 수입증가율(20.5%)을 상회하면서 전년동월(106.6억 달러)보다 늘어난 150.1억 달러로 흑자규모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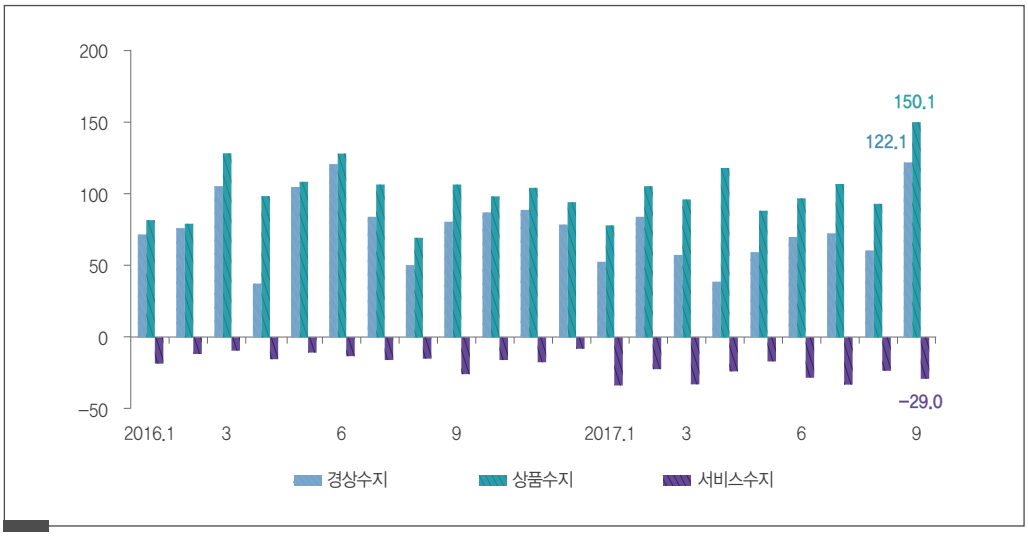
– 서비스수지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공서비스수지, 운수 및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전년동월(−25.8억 달러)보다 적자규모가 확대된 −29.0억 달러를 기록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 및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동월(7.8억 달러)보다 흑자규모가 확대된 11.5억 달러를 나타냄

– '17년 1~9월 중 누적 경상수지는 617.9억 달러로 전년동기간(732.0억 달러) 보다 114.1억 달러 흑자규모가 축소

[그림 11]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한국은행

고용시장은 전월에 이어 건설업과 공공부문 서비스업에서 호조세가 유지되며 견실한 취업자수 증가세 유지

⊙ 10월 중 취업자수(2,686만명)는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전월에 이어 10만명대를 유지하고 공공행정과 보건및서비스업의 호조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27.9만명 증가

–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비농림어업 26.2(제조업 2.8, 건설업 11.8, 서비스업 15.2), 농림어업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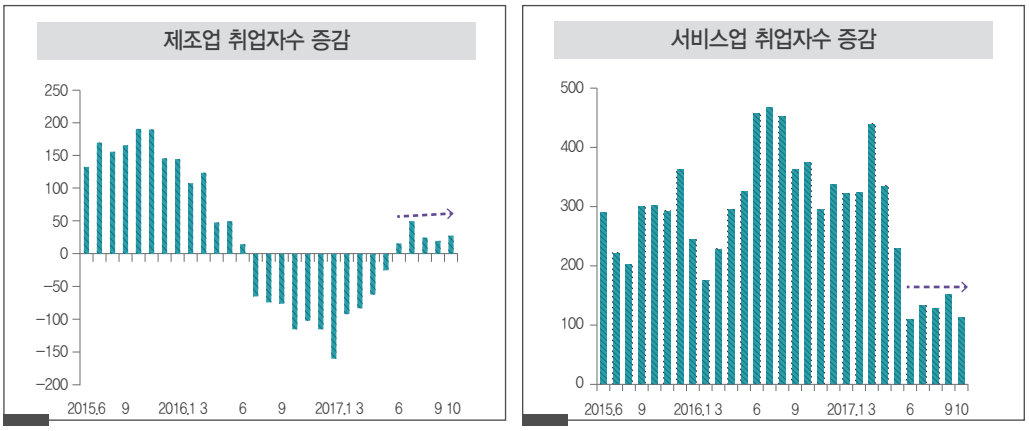
– 서비스업 고용은 공공행정(8.4만명, 8.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6.8만명, 3.6%) 등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7만명, −2.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7만명, −1.5%), 숙박및음식점업(−2.2만명, −0.9%) 등에서 감소

⊙ 제조업 취업자수(449만명)는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지만, 업황이 반도체, 화학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음

⊙ 서비스업 취업자수(1,891만명)는 중국과의 사드갈등이 완화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

[그림 12]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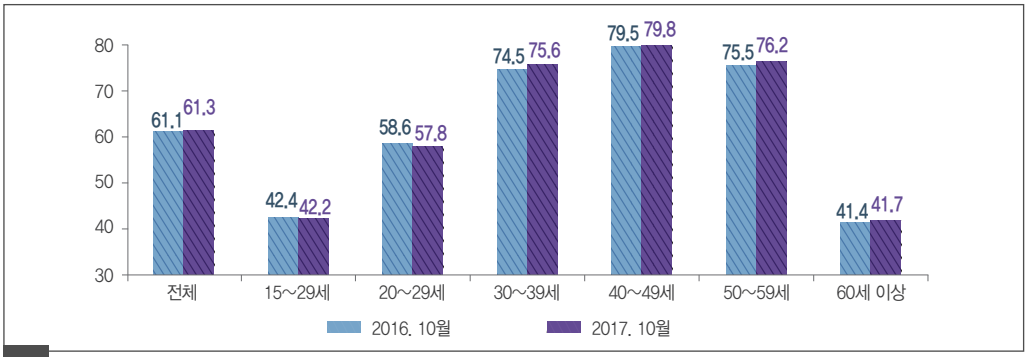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고용률(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

- 고용률은 61.3%(15~64세 OECD비교기준은 66.9%)로 전년동월대비 0.2%p(OECD비교기준 0.4%p) 상승
-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2만명 감소, 고용률은 42.2%로 0.2%p 하락

[그림 13] 연령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20대와 60세 이상에서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연령계층에서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3.2%(계절조정 3.6%)를 기록하여 전년동월에 비해 0.2%p(계절조정 전월대비 0.1%p)하락

- 실업률은 청년층에서 8.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으나, 30대(−0.4%p), 40대(−0.2%p), 50대(−0.1%p) 등에서 하락

– 실업자수는 20대(0.8만명, 2.3%)와 60세 이상(1.2만명, 13.5%)에서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연령층에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월에 이어 100만명을 하회한 89.6만명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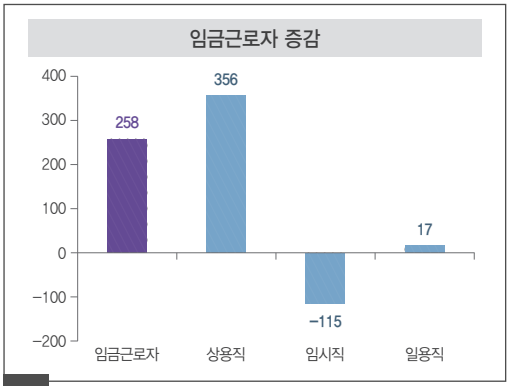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소폭 증가

– 임금근로자(1,995만명)는 전년동월대비 25.8만명(1.3%) 증가였고, 그 중 상용직은 35.6만명(2.7%), 일용직은 1.7만명(1.1%) 증가하였으나, 임시직은 11.5만명(−2.2%) 감소하여 지난 8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하여 고용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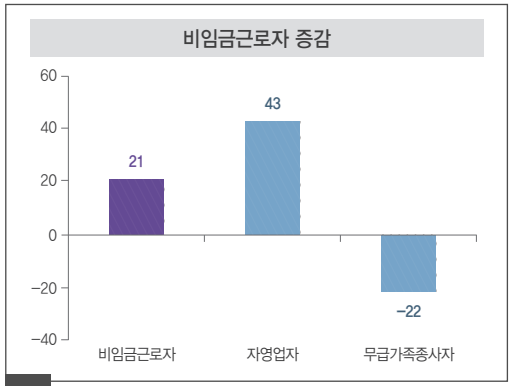
– 비임금근로자(574만명) 중 자영업자는 4.3만명(0.8%)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2.2만명(−1.8%)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1만명(0.3%) 증가

[그림 14]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취업자수 증감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천명)



(단위: 전년동월대비, 천명)



자료: 통계청

주: 임금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임시직, 1개월 미만 또는 매일 고용되어 일급,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일용직으로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가격이 안정되면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

⊙ 10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8%를 기록하여 전월(2.1%)에 비해 0.3%p 하락

– 농축수산물가격은 채소류가격이 하락(−9.7%)하는 등 전년동월비 3.0% 상승에 그쳐 안정세를 나타냄

–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가격이 전년동월비 8.2% 상승하여 공업제품가격의 상승세를 주도

–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품목성질별 기여도는 개인서비스(0.85%p), 석유류(0.35%p)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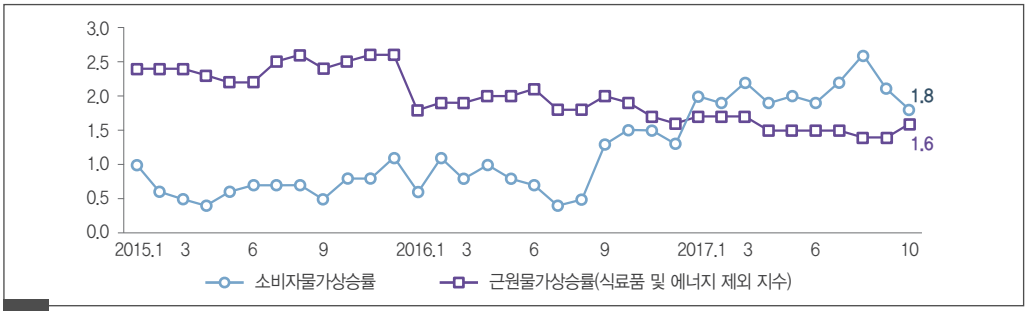
⊙ 근원물가지수(식료품 및 에너지가격 제외)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6%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2%p 상승

– 음식 및 숙박(2.5%), 교통(3.6%),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1.9%) 등 수요측 물가상승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출항목을 중심으로 증가

– 한편, 지난 8월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매매가격등락률 및 자가주거비포함지수등락률 등 주거관련 가격지수가 하락세로 반전

[그림 15]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근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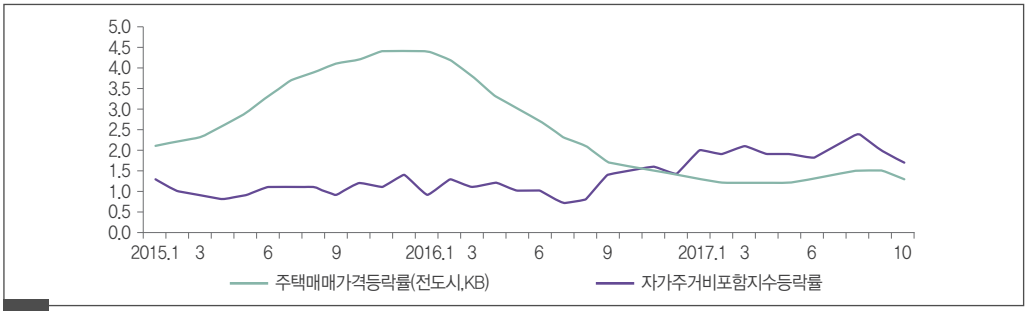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통계청

[그림 16] 주택관련 물가지수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통계청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10월 들어 큰 폭으로 상승

⊙ 10월 중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3/4분기 국내 경기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전월(1.79%)에 비해 24bp 상승한 2.03%를 기록

-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4% 상승하는 등 경기회복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국고채금리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냄
- 이에 따라 회사채금리 등 관련 시장금리도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

⊙ 12월 중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내 통화당국이 빠른 경기회복세에 대응할 경우 향후 시장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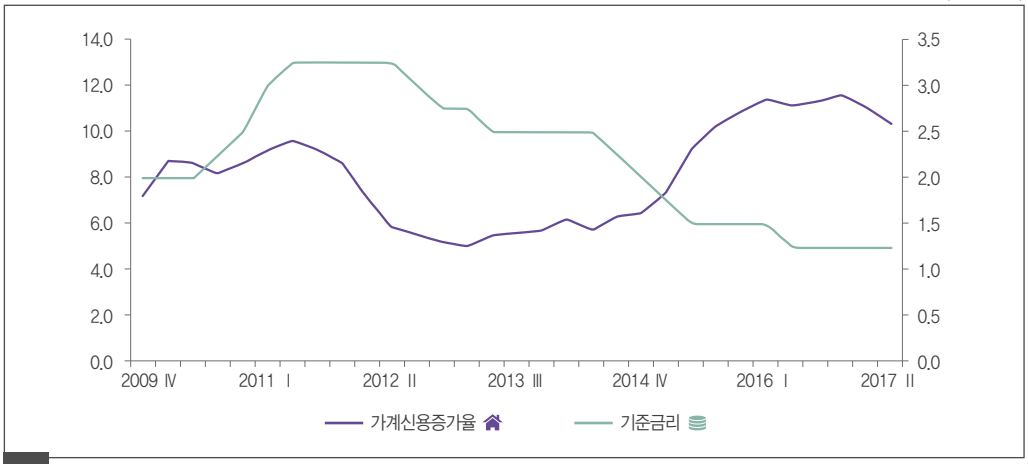
- 2012년 이후 통화당국은 저금리기조를 지속하여왔으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3.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미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제적으로 국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상존
- 저금리기조의 장기화로 인한 가계신용의 빠른 상승세 지속 및 세계 경기회복 등에 대응하여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시장금리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한편, 3년 만기 기준 회사채금리와 국고채금리의 차인 신용 스프레드는 보합세를 유지

- 고신용등급채권(AA-, %p): ('17. 8월)0.54 → (9월)0.55 → (10월)0.55
- 저신용등급채권(BBB-, %p): ('17. 8월)6.79 → (9월)6.79→ (10월)6.80

[그림 17]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가계신용증가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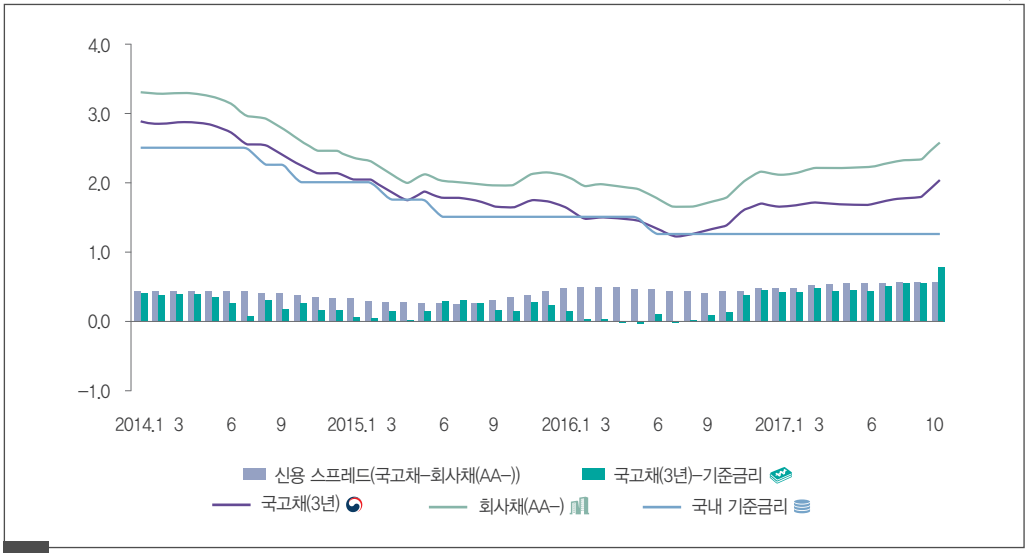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그림 18] 기준금리 및 국고채금리 변화추이

(단위: %, %p)



자료: 한국은행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 국내주식투자 증가, 경상수지 흑자규모 확대 등으로 하락

⊙ 10월 중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1,129원을 기록하여 전월(1,133원)에 비해 4원 하락하면서 5개월 만에 1,130원대를 하회

⊙ 북한 핵실험으로 고조되었던 북미간 긴장이 10월 들어 점차 완화되자 1,130원대를 중심으로 상당기간 횡보하던 원화가 강세로 방향성을 잡아가는 모습

-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개최(10. 19일) 이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화강세에 일조
- 국내경제가 반도체등 수출호조에 힘입어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전기비 1.4%를 기록하여 연간 3%대 성장기대감이 높음
- 미국 기준금리 인상(12월 예상) 이슈와 국제적 달러화 강세(엔화, 위안화 약세)에 대해 원화가 둔감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원화강세 추이

⊙ 세계경제 회복세, 세계증시 활성화에 힘입어 국내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내자 2개월 연속 감소되었던 외국인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경상수지도 전월대비 두 배 증가하는 등 외환유동성은 양호

- 외국인국내증권순투자(조원): ('17. 7월)3.0 → (8월)−4.6 → (9월)−5.2 → (10월)3.9
- 경상수지(억달러): ('17. 6월)70.1 → (7월)72.6 → (8월)60.6 → (9월)122.1

⊙ 향후 원/달러 환율은 양호한 경제성장, 국내외 증시 활성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힘입어 하방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그림 19]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

미국경제는 허리케인에 의한 일시적인 부진에서 벗어나 견실한 성장세 지속

⊙ 3/4분기 미국 실질GDP성장률은 허리케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4분기에 이어 견실한 성장세 지속

- 실질GDP성장률(전기대비 연율, %): ('17.1/4)1.2 → (2/4)3.1 → (3/4)3.0(속보치)
- 개인소비(2.4%), 민간투자(6.0%), 수출(2.3%) 등이 모두 전분기에 이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 9월 중 소비와 생산이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의 영향에 따른 8월의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고 10월 고용지표도 빠르게 개선

- 개인실질소비(전기대비 연율,%): ('17. 7월)3.2 → (8월)-0.9 → (9월)7.9
- 산업생산(전기대비, %): ('17. 7월)-0.1 → (8월)-0.7 → (9월)0.3
- 비농가취업자수 증감(전기대비, 만명): ('17. 8월)20.8 → (9월)1.8 → (10월)26.1
- 10월 중 실업률은 4.1%로 전월대비 0.1%p 하락하여 지난 2000년 12월(3.9%) 이후 최저수준 기록

유로지역 경제는 소매판매 및 투자 등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 3/4분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6%를 나타내며 2/4분기(0.7%)에 이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 경제성장률(전분기대비, %): ('17.1/4)0.6 → (2/4)0.7 → (3/4)0.6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17.1/4)2.0 → (2/4)2.3 → (3/4)2.5

⊙ 유로지역 경기는 10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9월 실업률이 8%에 진입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

- 제조업 PMI: ('17. 8월)57.4 → (9월)58.1 → (10월)58.6
- 실업률: ('17. 7월)9.0 → (8월)9.0 → (9월)8.9

⊙ 한편 ECB는 10.26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2018년부터 자산매입 규모를 300억 유로로 축소할 계획을 발표

- 현행 매월 600억 유로의 자산매입규모를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300억 유로로 축소 운영
- ECB는 유로존의 경기회복세가 견조하지만 물가상승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QE종료보다는 자산매입축소를 결정하였으며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재투자할 방침을 시사

중국경제는 수출과 소비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의 견조한 증가세 지속

⊙ 중국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8%를 기록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17.1/4)6.9 → (2/4)6.9 → (3/4)6.8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7.1/4)7.4 → (2/4)8.9 → (3/4)6.6

⊙ 큰 폭의 수입증가에도 불구 수출 및 소매판매의 호조세가 지속

- 수입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7. 7월)11.0 → (8월)13.4 → (9월)18.6
- 수출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7. 7월)6.5 → (8월)5.1 → (9월)8.1
- 소매판매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7. 7월)10.4 → (8월)10.1 → (9월)10.3

⊙ 중국정부는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가계소득을 진작시키고 성장둔화 우려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감독정책을 강화

- 19차 당대회에서 소비진작을 위한 사회복지 및 헬스케어 강화, 소득불균형 완화 등을 강조
- 가처분소득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7.1/4)7.0 → (2/4)7.3 → (3/4)7.5
- 최근 중국정부는 중국 금융산업을 통합관리하고 종합적인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할 국무원금융안전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그림자금융 및 자산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조

일본경제는 민간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경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9월 들어 일부 지표가 위축됨에 따라 경기가 다소 둔화

⊙ 3/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설비투자,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0.3% 증가

- 민간설비투자(0.2%), 수출(1.5%)이 증가한 반면 민간소비(−0.5%), 공적투자(−2.5%) 등이 감소
- 경제성장률(전분기대비, %): ('17.1/4)0.3 → (2/4)0.6 → (3/4)0.3
- 민간설비투자(전분기대비, %): ('17.1/4)0.5 → (2/4)0.5 → (3/4)0.2
- 민간소비(전분기대비, %): ('17.1/4)0.4 → (2/4)0.7 → (3/4)−0.5

⊙ 9월에는 소매판매가 증가한 반면 광공업생산, 수출, 민간기계수주가 위축되어 경기확장세가 다소 감속한 것으로 추정

- 소매판매(전월대비, %): ('17. 7월)1.1 → (8월)−1.6 → (9월)0.8
- 광공업생산(전월대비, %): ('17. 7월)−0.8 → (8월)2.0 → (9월)−1.1
- 통관수출(전월대비, %): ('17. 7월)2.7 → (8월)1.4 → (9월)−0.3
- 민간기계수주(전월대비, %, 선박·전력 제외): ('17. 7월)8.0 → (8월)3.4 → (9월)−8.1

Ⅱ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박승호 경제분석관** 연락처 **788-4671**

최근 카드 승인금액 및 승인건수가 증가세

⊙ 2017년 1~3분기 카드승인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증가

– 개인카드 승인액은 9.7%, 법인카드 12.9%, 카드 전체는 9.8% 증가

⊙ 동기간 카드 승인건수도 전년동기대비 확대

– 승인건수는 개인카드 13.8%, 법인카드 10.3%, 카드 전체는 13.8% 증가

최근 카드 사용실적은 「청탁금지법」관련 업종별 영향 차별화, 여가관련 소비확대, 유통업태별 실적 양극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청탁을 금지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유흥주점, 특급호텔 등의 카드매출액은 시행 이전 대비 감소

– 화훼업, 일반음식점, 골프 등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카드매출 증가율이 전업종 평균 증가율을 하회한 가운데, 화훼업의 법인카드 실적은 3.7% 감소

– 농축수산물 관련 카드승인 금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업종 평균을 상회하는 12.4% 증가했으나, 관련 품목의 수입도 확대되어 국내 농축수산물업계의 실적은 감소했을 가능성

⊙ 여가활동 관련 개인카드 지출액은 2017년 1~3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

– 여가관련 개인카드 승인금액이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한 가운데, 특히 여행 관련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

– 2017년 1~3분기 개인카드 사용액 중 여가관련 사용액 비중은 4.7%로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

⊙ 유통업태별로 실적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소비조합, 편의점의 카드매출액이 높은 성장세

– 2017년 1~3분기 소비조합의 카드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23.8%, 편의점은 25.6% 성장

– 반면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백화점의 카드매출은 5.7%, 6.9%, 4.7% 증가하며, 전체카드 승인금액 증가율 9.8%를 하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접대, 선물 등과 관련된 업종에 대한 일시적 영향은 불가피하나 취약 업종, 자영업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필요

⊙ 「청탁금지법」의 적용사례 명확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낮추는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경주할 필요

⊙ 한편 여가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관광 등 여가산업을 육성할 필요

01

최근 카드승인[1] 실적 동향

최근 전체카드(개인+법인카드) 승인금액은 증가세

⊙ 2017년 1~3분기 승인금액은 516조원으로 2016년 동기대비 46조원 증가

– 분기별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2017년 1분기 164조원 수준을 기록한 이후 2분기 172조원, 3분기 180조원으로 증가

⊙ 전체카드 승인금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상승세

– 2017년 1~3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2016년 동기대비 9.8% 증가

– 2017년 1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동기대비 9.0% 증가한 이후 2분기 9.2%, 3분기 11.1%로 증가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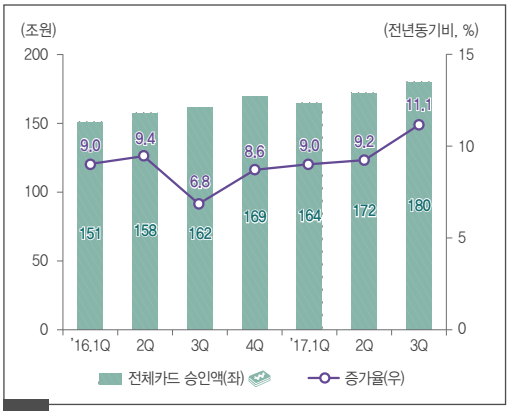
전체카드 승인건수 증가율도 2017년 들어 점진적 상승세

⊙ 전체카드 승인건수는 2017년 1~3분기 승인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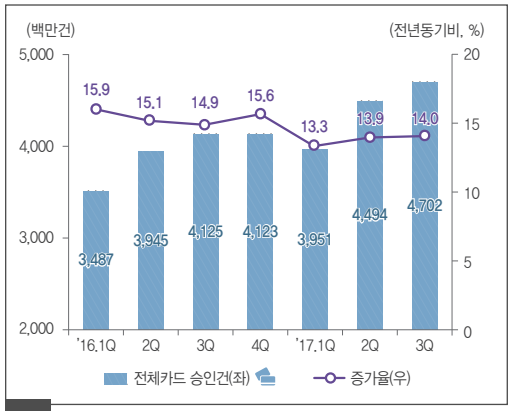
– 분기별로 2017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한 이후 증가폭을 확대하며 2분기 13.9%, 3분기 14.0% 증가

⊙ 한편 2017년 3분기 전체카드 1건당 평균 승인금액은 38,212원으로 전년동기 39,224원 대비 2.6% 하락

[그림 1] 전체카드(법인+개인카드) 승인액 추이



[그림 2] 전체카드(법인+개인카드) 승인건수 추이



주: 여신금융협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1) 현금서비스, 카드론, 해외신용판매, 기업구매전용카드 실적을 제외한 국내 신용판매 승인실적(신용, 체크, 선불카드)을 의미하며, 공과금서비스 관련 실적도 제외

개인카드 승인금액 및 승인건수는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

⊙ 2017년 1~3분기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426조원으로 2016년 동기 389조원대비 9.7% 증가

– 2017년 3분기 개인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0.3%로 1분기 9.6%, 2분기 9.1% 대비 증가폭 확대

⊙ 2017년 1~3분기 개인카드 승인건수는 123억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

– 개인카드 승인건수 증가율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13%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증가폭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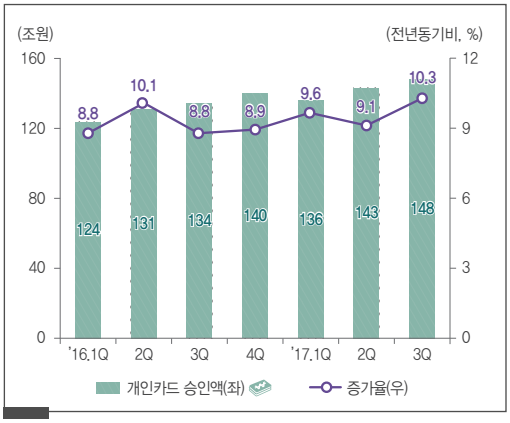
⊙ 개인카드 1건당 평균승인금액은 하락

– 2017년 1~3분기 1건당 평균승인금액은 34,552원으로 2016년 35,863원 대비 3.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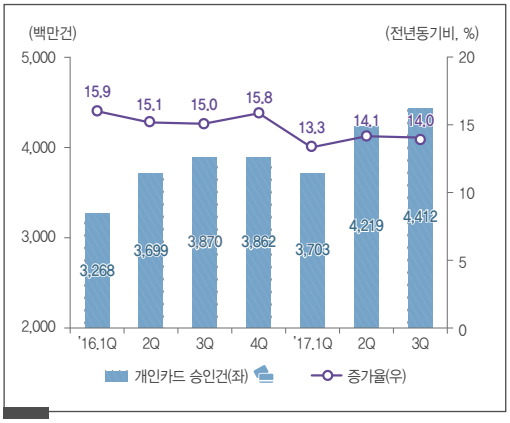
⊙ 개인카드 승인액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 가능

– 2017년 들어 민간소비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1분기 2.0%, 2분기 2.3%, 3분기 2.4%로 확대

[그림 3] 개인카드 승인금액 추이



[그림 4] 개인카드 승인건수 추이



주: 여신금융협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최근 법인카드의 사용실적 증가율이 상승세

⊙ 2017년 1분기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하였으나 2분기 9.5%, 3분기 15.0%로 증가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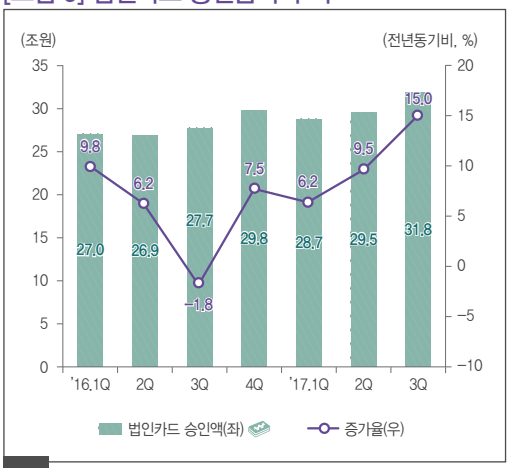
– 2017년 1~3분기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90조원으로 전년동기비 10.3% 증가

⊙ 법인카드 승인건수는 2017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한 2.5억건을 기록하였으나 3분기 2.9억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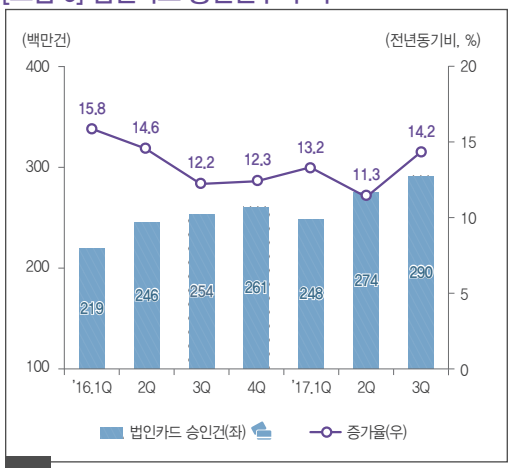
– 2017년 1~3분기 법인카드 승인건수는 8.1억건으로 전년동기비 12.9% 증가

⊙ 2017년 1~3분기 1건당 평균승인금액은 110,746원으로 전년대비 2.3% 하락

[그림 5] 법인카드 승인금액 추이



[그림 6] 법인카드 승인건수 추이



주: 여신금융협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02

최근 카드 승인실적의 주요 이슈 및 특징

가. 「청탁금지법」관련 업종별 영향 차별화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의 금품수수나 청탁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으로 2016년 9월 28일 시행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과 공공성이 강한 의료시설 및 은행 등도 대상

⊙ 「청탁금지법」에서는 사교 · 의례목적의 경우 적용대상 1인당 음식물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허용

주요 기관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위축과 서비스업, 화훼·농축수산업 등 일부 업종의 피해 발생을 우려

⊙ 2016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청탁금지법」이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 선물 수요가 위축되어 농림 축산물 생산액 8.4~10.8%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

⊙ 한국경제연구원[3]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연간 약 11조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음식업 8조5천억원, 선물 관련 2조원, 골프업계 1조1천억원 등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2016. 4분기~ 2017. 3분기) 카드 승인금액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 영향이 차별화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유흥주점, 특급호텔 등의 카드 승인금액이 이전(2015. 4분기~2016. 3분기) 대비 감소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유흥주점의 카드승인 실적은 2015년과 같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특히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4.8% 축소
- 특급호텔의 카드실적은 2015년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12.1% 감소
- 선물 등과 관련된 상품권, 인삼/건강식품 승인실적도 2015년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각 1.6%, 3.7% 감소로 전환

⊙ 화훼업, 일반음식점, 골프 등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카드매출 증가율이 전업종 평균 증가율을 하회

- 화훼업 카드매출액은 2015년 전업종 전년대비 평균 증가율 6.3%를 상회하는 8.2% 성장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업종 평균 증가율 9.5%를 하회하는 6.6% 성장했으며 법인카드 승인실적은 3.7% 감소
- 일반음식점 카드매출도 2015년 전업종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였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업종 평균 성장률을 하회하는 9.0% 증가
- 골프 관련 카드 승인금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5.8% 증가해 전업종 평균 증가율을 하회한 가운데, 법인카드 증가율은 2015년 전년대비 6.2% 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0.3%로 하락

⊙ 반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물 관련 카드매출은 전업종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였으나, 관련 품목의 수입 확대로 국내 농축수산물 업계의 실적은 감소했을 가능성 존재

2)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 농촌경제연구원(2016.7)
3)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2016.6)

– 농축수산물 관련 카드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2.4% 증가하며 전업종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농축수산물 관련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6.8% 증가

– 농축수산물 관련 카드매출 증가는 단가 및 수량조절 등이 용이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수요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다만 2015.4분기~2016.3분기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했던 축산물 수입이 2016.4~2017.3분기 18.2% 증가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입이 증가해 국내 관련 업계의 실적은 감소했을 가능성

[표 1] 농축수산물 수입액 변화

(단위: 백만달러)

	'15. 4분기~'16. 3분기	증가율(%)*	'16. 4분기~'17. 3분기	증가율(%)
농산물	16,652	–7.0	17,798	6.9
축산물	6,071	–2.0	7,174	18.2
수산물	4,527	2.4	5,067	11.9

주: 무역협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표 2] 「청탁금지법」 관련 업종별 카드승인 금액 변화

(단위: 십억원)

구분	법인카드	전체카드	법인카드			전체카드		
	'15년 전년대비 증감률(%)*	'15년 전년대비 증감률(%)	'15. 4분기~'16. 3분기	'16. 4분기~'17. 3분기	증감률(%)	'15. 4분기~'16. 3분기	'16. 4분기~'17. 3분기	증감률(%)
유흥주점	–3.2	–3.1	1,133	1,078	–4.8	4,501	4,474	–0.6
일반음식점	10.0	10.1	16,645	17,677	6.2	92,938	101,305	9.0
골프장	6.2	5.0	1,577	1,582	0.3	4,216	4,458	5.8
화훼업종	6.3	8.2	216	208	–3.7	743	792	6.6
농축수산물**	11.4	9.9	2,168	2,748	26.8	12,595	14,163	12.4
특급호텔	–6.1	1.9	749	684	–8.7	1,896	1,667	–12.1
상품권	–6.8	0.7	1,908	1,642	–14.0	5,297	5,211	–1.6
인삼/건강식품	73.5	18.3	456	496	8.8	1,587	1,528	–3.7
전체 승인금액	**5.1**	**6.3**	**109,299**	**119,778**	**9.6**	**626,213**	**685,596**	**9.5**

주: 여신금융협회 데이터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데이터 제약 요인과 「청탁금지법」 시행 영향 배제 등을 위해 2014년 대비 2015년 증감률을 반영

**농축수산물은 농축산물, 농수축협직판장, 정육점, 농협식품전문점 카드승인금액의 합계

「청탁금지법」으로 공무원 등에 대한 선물, 식사 대접 등에 대한 금액한도가 시행된 이후 관련 업종별 1건당 평균 카드승인 금액 증감율도 차별화

⊙ 유흥주점, 화훼업종의 1건당 평균 승인 금액은 전체카드 건당 평균 승인 금액 하락폭을 상회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업종의 카드 1건당 평균 승인금액이 4.1% 하락한 가운데, 화훼업종은 9.5%, 유흥주점은 7.2% 하락

⊙ 반면 농축수산물, 골프장 등의 1건당 평균 카드승인 금액 하락률은 각각 −0.1%, −2.2%로 전업종의 하락률을 하회

[표 3] 업종별/카드형태별 1건당 평균 사용금액 변화

(단위: 십억원)

구분	법인카드			전체카드		
	'15. 4분기~'16. 3분기	'16. 4분기~'17. 3분기	증감률(%)	'15. 4분기~'16. 3분기	'16. 4분기~'17. 3분기	증감률(%)
유흥주점	461,412	439,032	−4.9	179,468	166,500	−7.2
일반음식점	49,931	47,392	−5.1	25,358	24,401	−3.8
골프장	234,666	221,041	−5.8	145,316	142,061	−2.2
화훼업종	126,550	119,572	−5.5	58,927	53,337	−9.5
농축수산물	115,916	134,812	16.3	46,619	46,561	−0.1
특급호텔	373,683	341,849	−8.5	155,732	153,938	−1.2
상품권판매	67,311	69,729	3.6	37,061	43,429	17.2
인삼/건강식품	726,034	778,563	7.2	201,401	203,231	0.9
전체 평균	**114,794**	**111,553**	**−2.8**	**41,406**	**39,698**	**−4.1**

주: 여신금융협회 데이터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나. 여행 등 여가관련 소비 확대

여가활동 관련 개인카드 승인액은 2017년 1분기~3분기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

⊙ 2017년 1분기~3분기 여행과 관련된 개인카드 사용액은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

– 2017년 1분기~3분기 여행사 관련 개인카드 사용액은 1.6조원으로 전년대비 27.7% 증가했으며, 항공권도 전년대비 26.4% 증가

⊙ 애완동물, 피부미용 등과 관련된 카드소비액도 증가세

– 애완동물 관련 카드소비액은 2017년 1분기~3분기 전년동기대비 24% 증가

– 피부미용 관련 카드소비액도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

⊙ 반면 문화 및 스포츠와 관련된 개인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전업종 개인카드 평균 증가율 9.7%를 하회하는 4.3%, 9.4% 증가

– 스포츠 관련 2017년 1분기~3분기 개인카드 사용액 중 헬스(12.7%), 볼링 (81.7%) 등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스키장은 45.1% 감소

⊙ 여행 등 여가소비 확대는 경기회복세, 환율하락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개인카드 사용액 중 여가활동 관련 사용액의 비중도 상승

⊙ 2017년 1분기~3분기 개인카드 사용액 중 여가관련 사용액 비중은 4.7%로 전년동기대비 0.2%p 증가

– 여행 관련 개인카드 사용액 비중이 2016년 1분기~3분기 1.5%에서 2017년 1.7%로 상승

[표 4] 여가관련 개인카드 승인금액 추이

(단위 : 십억원)

구분	'16. 1분기~3분기	비중(%)	'17. 1분기~3분기	비중(%)	증가율(%)
여행 관련	**5,775**	**1.5**	**7,216**	**1.7**	**25.0**
• 여행사	1,222	0.3	1,561	0.4	27.7
• 항공권	4,211	1.1	5,321	1.2	26.4
• 기타	342	0.1	334	0.1	–2.2
문화 관련	**1,145**	**0.3**	**1,195**	**0.3**	**4.3**
• 문화생활	1,055	0.3	1,101	0.3	4.3
• 악기 등	90	0.0	94	0.0	4.0
스포츠 관련	**9,759**	**2.5**	**10,681**	**2.5**	**9.4**
• 헬스	676	0.2	762	0.2	12.7
• 골프 등	2,591	0.7	2,812	0.7	8.5
• 기타	6,492	1.7	7,107	1.7	9.5
기타	**905**	**0.2**	**1,077**	**0.3**	**19.0**
• 피부미용실	529	0.1	611	0.1	15.5
• 애완동물	376	0.1	467	0.1	24.0
여가 관련 합계	**17,585**	**4.5**	**20,169**	**4.7**	**14.7**
전체승인실적	**388,641**	**100.0**	**426,177**	**100.0**	**9.7**

주: 여신금융협회 데이터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다. 유통업계[4]의 실적 양극화

유통업태별로 성장세가 차별화

⊙ 2017년 1분기~3분기 소비조합, 편의점 등의 카드 매출액이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급성장

- 2017년 1분기~3분기 유기농 식품 등과 관련된 소비조합의 카드 매출액은 2.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3.8% 증가
- 편의점도 동기간 카드매출액은 1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6% 성장

⊙ 반면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백화점의 카드매출은 한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전업종 전체 카드 승인금액 증가율 9.8%를 하회하는 성장

- 2017년 1분기~3분기 대형할인점 카드매출액은 27.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7% 증가
- 백화점 카드매출은 4.7%, 슈퍼마켓은 6.9% 증가

⊙ 이는 편의점의 도시락 등 1인 가구 공략 확대,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수요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한편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010년 23.9%에서 2015년 27.2%로 상승

소비조합 및 편의점에 대한 카드승인 비중도 상승

⊙ 2017년 1분기~3분기 편의점 카드매출의 전업종 전체카드 승인금액 대비 비중은 2.3%로 전년대비 0.3%p 상승

- 소비조합은 2016년 0.2%에서 2017년 0.4%로 상승

⊙ 반면, 2017년 1분기~3분기 대형할인점의 비중은 5.3%로 2016년 5.5% 대비 0.2%p 하락

- 백화점, 슈퍼마켓 비중도 각각 0.2%p, 0.1%p 하락

[표 5] 유통업태별 카드승인 실적 변화

(단위: 십억원)

구분	개인카드			전체카드(개인+법인)				
	'16. 1분기~3분기	'17. 1분기~3분기	증가율(%)	'16. 1분기~3분기	비중(%)	'17. 1분기~3분기	비중(%)	증가율(%)
대형할인점	23,614	24,893	5.4	25,735	5.5	27,210	5.3	5.7
소비조합	836	1,597	91.0	923	0.2	2,065	0.4	123.8
슈퍼마켓	20,730	22,070	6.5	22,471	4.8	24,014	4.7	6.9
백화점	13,348	13,697	2.6	14,818	3.2	15,513	3.0	4.7
편의점	9,104	11,422	25.5	9,572	2.0	12,024	2.3	25.6
유통업 합계	**67,632**	**73,679**	**8.9**	**73,519**	**15.7**	**80,826**	**15.7**	**9.9**
전체 승인금액	**388,641**	**426,177**	**9.7**	**470,246**	**100**	**516,194**	**100**	**9.8**

주: 여신금융협회 데이터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4) 데이터 제약으로 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 상거래는 제외

03
시사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업종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유흥주점, 특급호텔 등의 카드 승인금액이 이전(2015. 4분기~2016. 3분기) 대비 감소

⊙ 화훼업, 음식업 등의 업종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카드 승인금액이 전업종 평균 증가율을 하회하는 성장률을 기록

- 화훼업의 법인카드 승인실적은 시행이전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음식업은 전업종 평균 증가율 9.6%를 하회하는 6.2% 증가
- 골프 관련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5.8% 증가해 전업종 평균 증가율을 하회한 가운데,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0.3% 증가

⊙ 농축수산물 관련 카드승인 금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업종 평균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으나, 관련 품목의 수입도 확대되어 국내 농축수산물업계의 실적은 감소했을 가능성

- 농축수산물 관련 카드매출 증가는 단가 및 수량조절 등이 용이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수요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접대, 선물 등과 관련된 일부업종에 대한 일시적 영향은 불가피하나 취약업종, 자영업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음식점, 화훼업 등 취약업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관련 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 소비활성화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
- 또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

⊙ 한편 「청탁금지법」의 적용사례 명확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낮추는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경주할 필요

여가관련 업종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업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

⊙ 여가서비스 관련 노동력 육성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 등도 강화

⊙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가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필요

III

최근 세계경제 회복의 특징과 지속성 분석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유승선 경제분석관** 연락처 **788-4658**

2017년 들어 민간투자가 확대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히 강화

⊙ IMF는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 3.4%에서 10월 3.6%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성장 모멘텀이 완만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2015~2016년 중 부진했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민간투자가 기술업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세계경기 회복을 주도

⊙ 전년대비 성장률 증가폭은 선진국(2016년 1.7% → 2017년 2.2%)과 신흥개도국(4.3% → 4.6%)이 각각 0.5%p, 0.3%p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어 7년 만에 동반 성장 기대

- 선진국의 경기가 개선되자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및 신흥개도국 수출증가로 국제교역증가율도 2017년 4.6%(OECD 전망)로 개선

신산업 확대 등 우호적 민간투자 여건과 안정적인 국제원유수요 확대로 세계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

⊙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와 이와 관련한 네트워킹 분야에 선진국 투자가 확대되어 자본스톡의 생산성 향상과 신수요 창출 도모

- 기술투자에 필수적인 반도체의 기록적인 대외 수출(1~9월 전년동기대비 53.9% 증가)은 새로운 수요가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 국제금융시장의 활성화, 선진국의 설비과잉 완화 등 기업경영환경도 민간투자에 우호적

⊙ 향후 과도한 국제유가 상승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국제원유수요와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동반성장세는 세계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 안정적인 국제원유수요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이며, 세계경제성장률 상승과 세계무역량 신장에 기여

구조적 임금인상 제약으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 국제금리 상승의 불확실성 등이 세계경제 성장에 저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

⊙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노동생산성, 낮은 기대인플레이션율 등이 임금상승을 억제하여 선진국의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

⊙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제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부담으로 인해 각국 민간지출의 위축과 신흥개도국의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밖에도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급락 재현, 저물가 지속 등이 누적된다면 성장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

01

최근 세계경제 회복 양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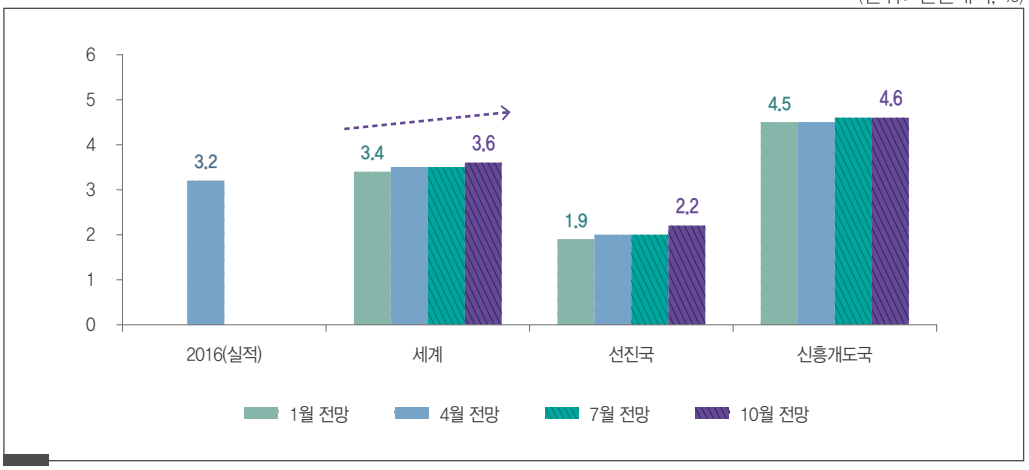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2017년 들어 완만히 강화

⊙ IMF는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 3.4%에서 10월 3.6%로 상향 조정하며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국가별로는 미국 2016년 1.5% → 2017년 2.2%, 유로지역 1.8% → 2.1%, 일본 1.0% → 1.5%, 신흥개도국 4.3% → 4.6%로 개선 전망

[그림 1] IMF의 2017년 세계경제 전망 조정

(단위: 전년대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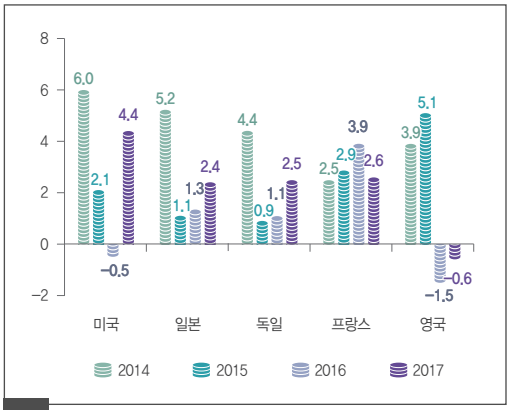
⊙ 2015~2016년 중 부진했던 선진국 민간투자 회복이 성장을 촉진

– OECD 민간투자 전망(전년대비,%): 미국(2016년 −0.5 → 2017년 4.4 전망), 일본(1.3 → 2.4 전망), 독일(1.1 → 2.5 전망)

– 프랑스는 다소 둔화(3.9 → 2.6)되었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였고, 영국은 감소세가 완화

[그림 2] 주요 선진국의 민간투자 추이

(단위: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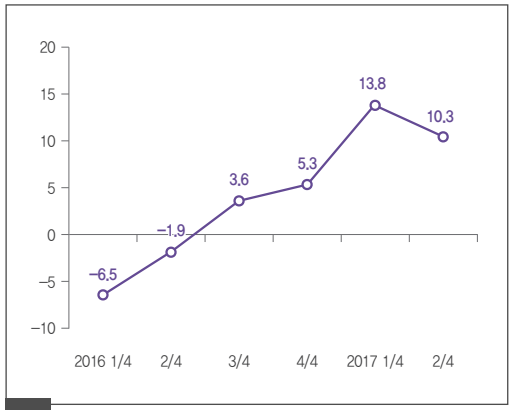


주: 1) 주택투자를 제외한 고정자본 형성
2) 2017년은 전망치

자료: OECD

[그림 3] S&P500기업 영업이익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국제금융센터

⊙ 선진국 투자가 증가한 것은 기업수익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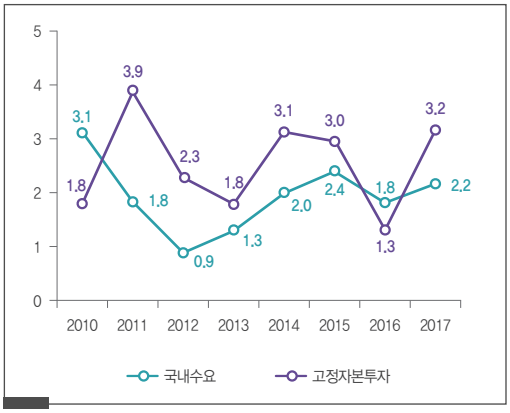
– 미국 S&P500지수 기업의 영업이익증가율이 2016년 전년동기대비 −6.5%에서 2017년 2/4분기에는 10.3%로 현저히 개선

⊙ 선진국의 경기가 개선되자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및 신흥개도국 수출증가로 국제교역증가율도 2017년 4.6%(OECD 전망)로 개선

– 투자가 올해 들어 다소 주춤했던 민간소비를 보완하고 경기회복을 이끌면서 선진국의 국내수요(수입수요)가 증가

[그림 4] OECD국의 국내수요 및 고정자본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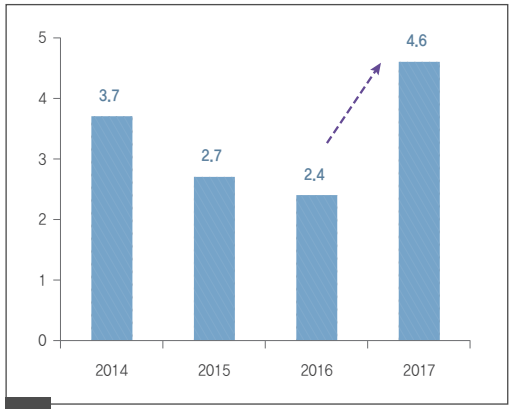
(단위: 전년대비, %)



자료: OECD

[그림 5] 국제교역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대비, %)



자료: OECD

⊙ 신흥개도국 경제도 수출회복이 내수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회복세

- 선진국 경제회복으로 수출수요가 증가하고,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외부문이 성장을 견인
- 브라질, 러시아 등은 원자재 수출이 증가하자 2016년 부진했던 내수가 다소 회복하면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 IMF전망(%): 브라질(2016년 -3.6 → 2017년 0.7 전망), 러시아(-0.2 → 1.8 전망)
- 중국은 소비, 투자(SOC, 주택투자)가 안정되고, 대외수출이 증가하자 국내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성장세(2016년 6.7 → 2017년 6.8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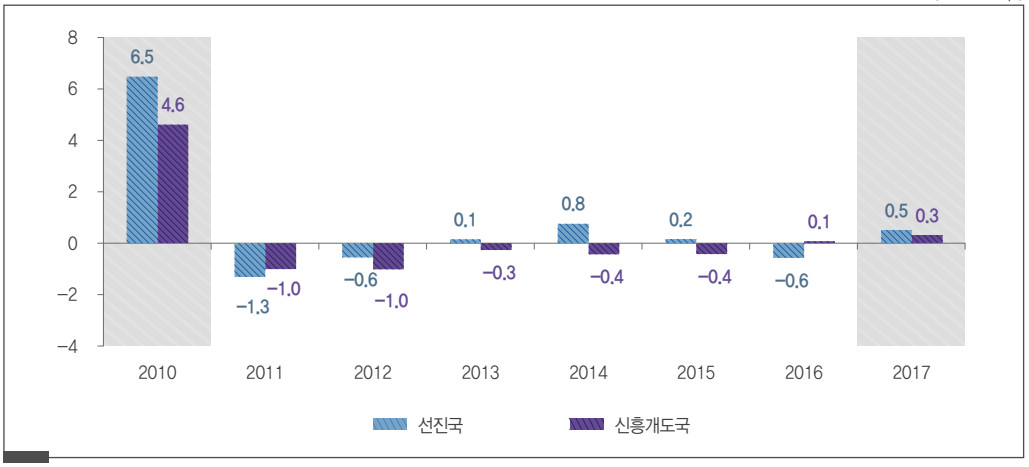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이 7년 만에 동반성장하여 세계경제 성장모멘텀 강화 기대

⊙ 2017년에는 전년대비 성장률 증가폭이 선진국(2016년 1.7% → 2017년 2.2%)과 신흥개도국(4.3% → 4.6%)의 경우 각각 0.5%p, 0.3%p 개선되며 모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완화되면서 세계경제가 큰 폭 성장했던 2010년 이후 7년 만에 나타난 특징

[그림 6]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 증감 추이

(단위: %p)



자료: IMF

02

세계경제 성장의 지속성 점검

세계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여건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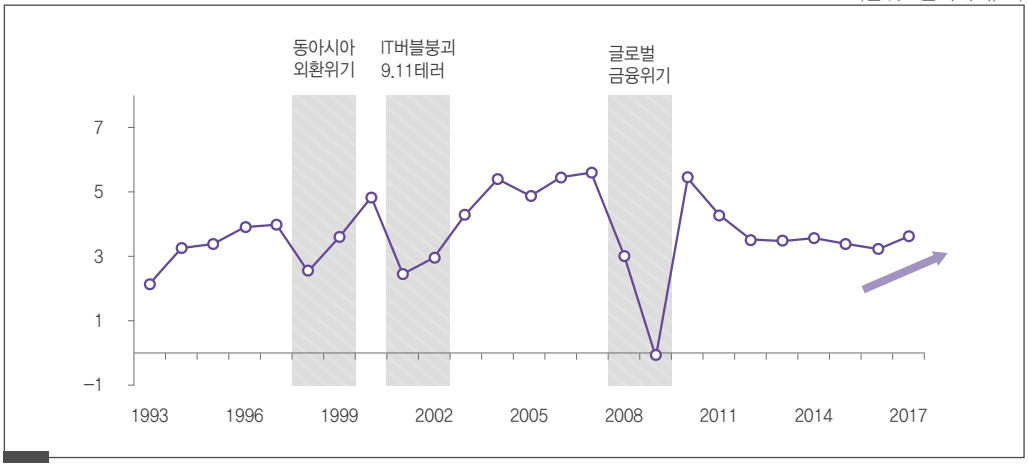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갇혀 선진국은 내수부진, 신흥개도국은 수출경기 악화의 어려움 지속

⊙ 만약 세계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한다면 10년 만에 성장추세가 전환되는 것

– 2000년 전후 동아시아 외환위기(1998년), 미국 IT버블붕괴(2000년) 및 9.11테러(2001년) 당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이 성장경로로 복귀하는데 5년이 경과했던 것에 비해 2배 기간 소요

[그림 7] 세계경제성장률과 주요 사건

(단위: 전기대비, %)



자료: IMF

가. 우호적 민간투자 여건

기술부문의 민간투자 확대와 새로운 수요 창출

⊙ 현재 세계적 주요기업들이 새로운 기술투자를 통해 자본스톡의 생산성 향상과 신수요 창출을 도모

– 특히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와 이와 관련한 네트워킹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반도체 수출과 세계경기의 관계

세계경제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국내 반도체 수출

⊙ IHS Markit(3.29일)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업체(삼성, SK하이닉스) 매출의 세계시장 점유율(2016년)이 15.6%(약 550억 달러)를 기록

– 특히 D램(시장점유율 75% 내외)을 포함한 메모리시장에서는 국내업체가 지배적 위상

⊙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ICT장비에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계경기에 민감한 특성

– 국내 반도체의 수출을 세계경제와 IT시장 동향을 파악하는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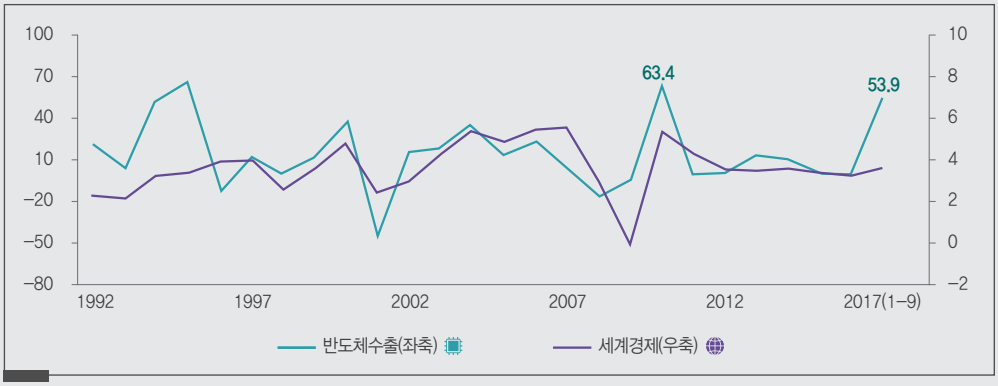
최근 기술투자에 필수적인 반도체의 수출이 기록적으로 증가하여 신수요가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 시사

⊙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1~9월 중 전년동기대비 무려 53.9% 증가(수출액 682억 달러)

– Gartner(2016.12)[1]가 2017년 중 반도체가 7.2% 증가 예측을 기초로 우리나라 반도체수출이 16.5% 증가할 것이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2)[2]의 전망을 현저히 뛰어넘는 실적

[그림 1] 세계경제성장률과 국내 반도체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전기대비, %)



자료: IMF, 무역협회

1) Gartner, "Semiconductor Forecast Database, Worldwide, 4Q16 Update," 2016.12.

2) 정보통신연구원, "ICT산업 중장기 전망(2017~2021) 및 대응전략," 2017.2.

금융시장의 활성화로 투자자금조달비용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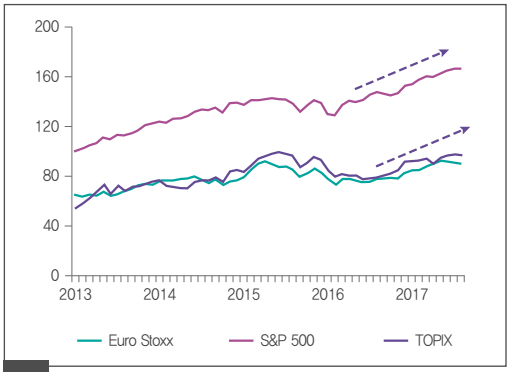
⊙ 기업수익 증가를 기반으로 선진국 주가가 호조

– 11월 들어 미국 S&P500(11. 16일 2,586포인트)는 사상 최고치, 일본 Topix(11. 16일 1,761포인트)도 강세 지속

⊙ 채권시장에서도 특히 저신용채권의 금리스프레드가 하락하여 자금조달여건이 크게 개선

[그림 8] 주요 선진국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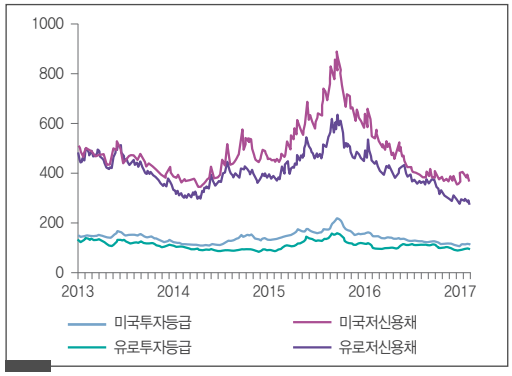
(단위: 2007=100)



자료:Bloomberg

[그림 9]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

(단위: bp)



주: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금리차

자료: Bloomberg

미국과 독일의 과잉설비가 해소되는 등 세계적인 초과 설비 완화

⊙ OECD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수준에 비해 생산능력이 1.4~2.5%(2011~2016년 기간) 초과하여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

– 선진국들은 강력한 통화공급정책과 마이너스금리 시행으로 투자위험을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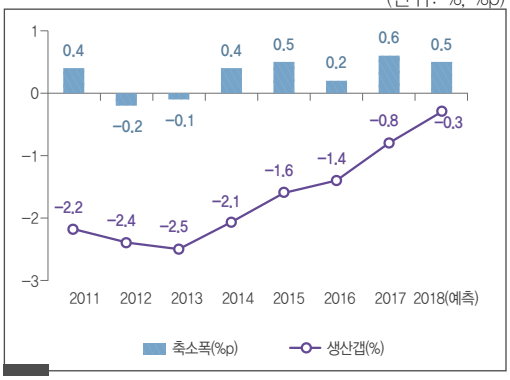
⊙ 2017년 들어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갭(잠재GDP와 GDP 간 차)이 현저히 축소되면서 설비과잉이 해소 추세

– OECD국가의 생산갭이 2016년 -1.4%에서 2017년 -0.8%로 축소 추정(2018년에는 -0.3% 예상)

– 특히 세계경제를 이끄는 동력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생산갭이 플러스로 전환하거나 생산갭 플러스가 확대됨에 따라 신규투자의 유인이 증대

[그림 10] OECD국의 생산갭 추이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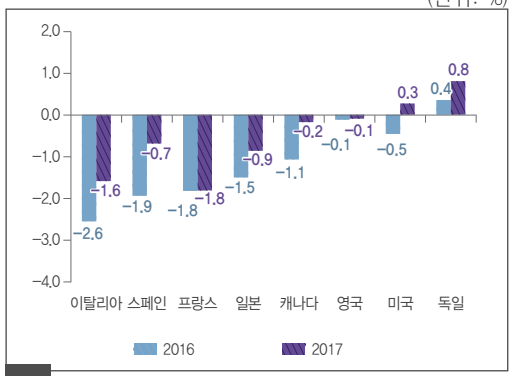


주: 생산갭=(실질GDP-잠재GDP)/잠재GDP*100

자료:OECD

[그림 11] 주요 선진국 생산갭의 변화

(단위: %)



자료:IMF

나. 양호한 국제원유수요와 국가 간 동반성장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원유수요

⊙ 유가보다 올해 들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요측면에 관심을 두면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

- 국제유가가 지난 1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이다 최근 배럴 당 64달러(Brent유 기준, 11. 9일)까지 상승
- 그런데 국제유가는 사우디 정국불안, 중동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유가결정요인이 워낙 다양하여 예측이 어려운 대표적 지표

⊙ 지난 10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는 올해 국제원유수요가 2016년 말 전망에 비해 1.4% 높은 연간 평균 98.3백만 배럴/일로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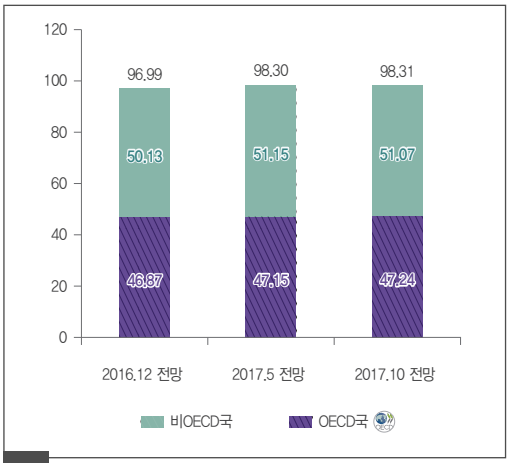
- 2017년 2/4분기만 보면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며 전년동기대비 2.0% 증가
- 2014년 유럽이 그리스의 EU이탈 우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위기로 인한 수요충격이 해소되자 선진국 수요가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2016년 말부터 가속

⊙ 원유수요의 안정성이 중요한 것은 선진국 산업생산의 안정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신흥개도국(특히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때문

- 다만 선진국에 충격이 될 정도의 과도한 유가상승이 수반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세계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그림 12] EIA의 2017년 세계원유 수요 전망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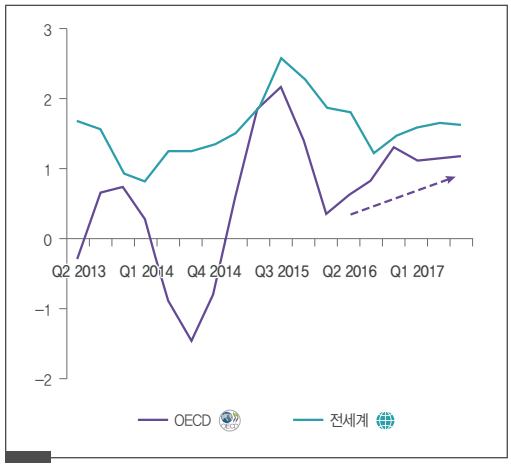
(단위: 백만배럴/일)



주: 일일수요에 대한 연간 평균
자료: 미국EIA

[그림 13] 세계 원유수요 추이

(단위: 전년동분기대비, %)



주: 2분기 이동평균
자료: 미국EIA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이 동반성장한다면 세계경제의 성장모멘텀이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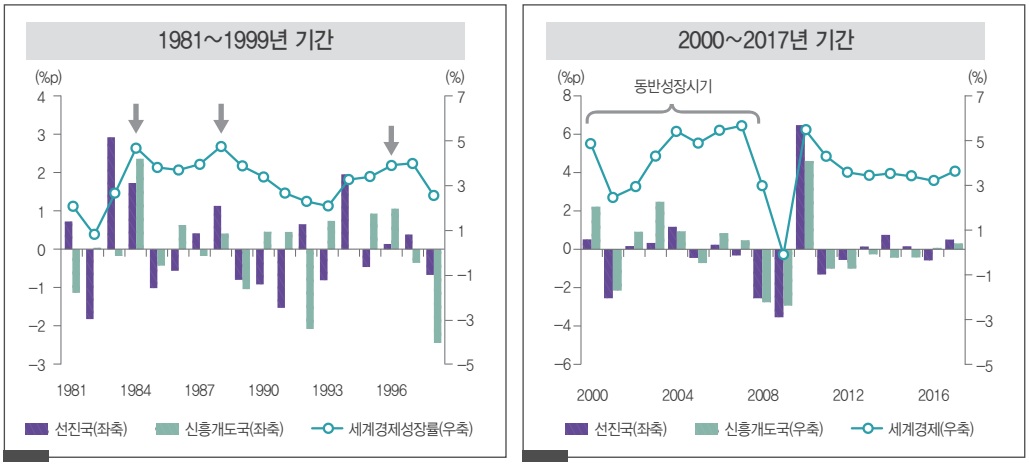
⊙ 세계경제 내 신흥개도국의 비중이 58.7%에 이르기 때문에 세계경제 성장성 회복에는 신흥개도국 성장 및 선진국과 무역확대가 필요

- 2000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까지는 동반성장이 일반적이었으며, 세계경제도 높은 성장세를 구가(연평균 4.3%)
- 세계경제 내 신흥개도국 경제 비중(%): ('81)36.3 → ('91)36.9 → ('01)43.5 → ('11)54.3 → ('17)58.7

⊙ 과거 신흥개도국의 비중이 낮았던 1981~1997년 기간 중에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성장률의 동반상승은 특이 현상

- 17년 동안 동반성장이 나타난 것은 3개년에 불과하며, 세계경제상승률도 2000년대에 비해 낮은 수준(연평균 3.2%)

[그림 14]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 증감과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주: 2017년은 예측치, 화살표는 동반상승시점
자료: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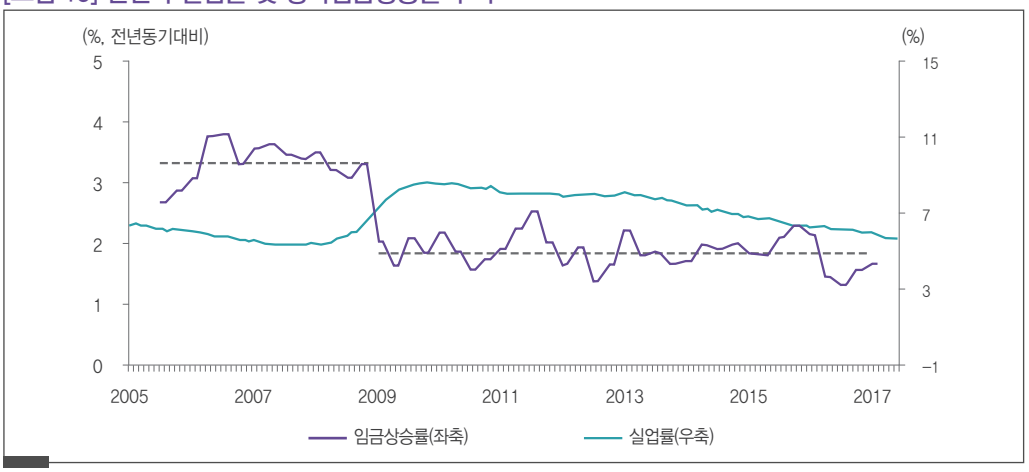
다.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구조적 제약요인

고용과 임금의 연계성이 복구되는 것이 선진국 민간소비 회복에 긴요

⊙ 선진국 경기회복 및 고용증가(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은 미약

- 선진국 평균 실업률이 2011년 8%대에서 2017년 5%대로 하락했으나 평균 임금상승률은 2% 대를 하회(실질임금상승률은 0%대 근방에서 변동)
- 2017년 상반기 임금상승률(명목/실질,%): (미국)2.4/0.2, (유로)1.4/-0.3, (일본)0.4/0.1

[그림 15] 선진국 실업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추이



주: 1) 임금상승률은 분기자료의 2분기 이동평균,
2) 수평점선은 기간 중 평균치

자료: IMF

⊙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임금상승요인으로 작용하나 구조적 요인이 선진국 임금상승과 민간소비를 제약

- 한국은행(2017)[3]은 임금상승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부진한 노동생산성, 고령층 취업자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있다고 분석
- FT(10. 12일)는 낮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임금협상 시 노동자들이 임금상승을 요구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
- 구조적 요인에 의한 미약한 임금인상으로 민간소비의 조기 활성화를 기대키 어려운 상황

라. 선진국 금융긴축 효과의 불확실성

통화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 미국FRB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양적완화정책, 마이너스 정책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4]

-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자 FRB는 기준금리를 4차례(0~0.25% → 1~0.25%), 영국은 한 차례(0.25% → 0.5%) 인상하는 등 선진국들이 금융긴축(금리인상, 양적긴축)을 추진

3) 한국은행, "최근 주요국 임금상승세 부진 원인 및 평가," 해외경제포커스. 2017.9.8

4) 예를 들면 Silva and Rungcharoenkitkul("QE Experiences and Some Lessons for Monetary Policy: Defending the Important Role Central Banks Have Played," April 2017, 5-7, BIS)는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부문이 통제불능의 혼란에 빠짐을 방지하고, 강력한 통화완화정책에 대한 신호(signaling effect), 장기채권 매입을 통한 장기금리 인하 및 위험자산수요 촉진(portfolio balance channel)를 통해 총수요도 자극했다고 주장

⊙ 선진국의 실업률이 크게 하락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전년동기대비, %, 2008년 → 2017년 9월): (미국)3.8 → 2.2, (독일)2.6 → 1.8, (프랑스)2.2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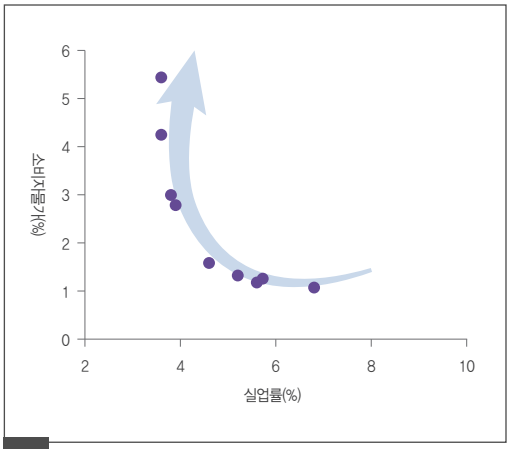
– FT(10.12일자)는 물가상승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통신비와 같은 특정 가격의 하락, 통상적 인식 수준보다 높은 과잉설비 존재 가능성,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세계적인 무역과 기술 통합 등 지적

⊙ 낮은 실업과 낮은 물가상승률은 통화정책 유효성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

– 전통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역관계(필립스곡선)가 1960년에는 분명했으나 최근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 점은 오늘날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움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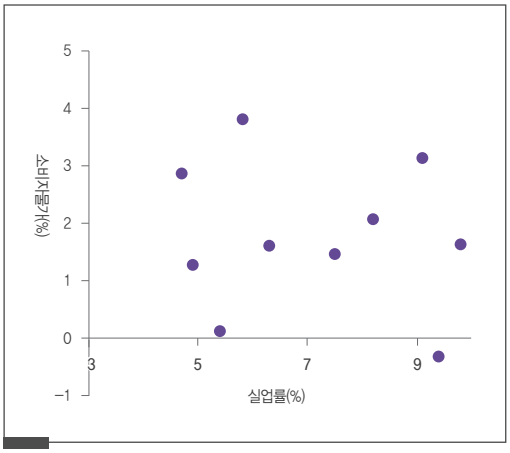
⊙ 이때 금융긴축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도 높아질 우려

[그림 16] 1960년대 미국 필립스곡선 (단위: %)



주: 연간자료
자료: 미국 FRB(ST. Louis)

[그림 17] 2007~2016년 필립스곡선 (단위: %)



자료: 미국 FRB(ST. Louis)

국제적으로 높아진 부채 수준, 자본유출입 확대로 인해 세계경제가 국제금리 변동에 예민해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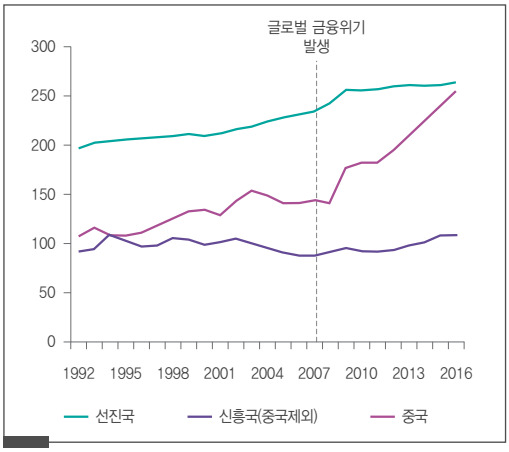
⊙ 경기부양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

– G20국 GDP대비 비금융기업 부채비율(%): (선진국)2008년 234 → 2016년 263, (신흥개도국, 중국 제외)88 → 108, (중국)141 → 254

– 또한 경기회복에 힘입어 2017년 들어 신흥신흥국으로 해외자본 유입이 급증하며, 2015~2016년의 두 배 수준인 연간 3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

[그림 18] G20국 비금융부문 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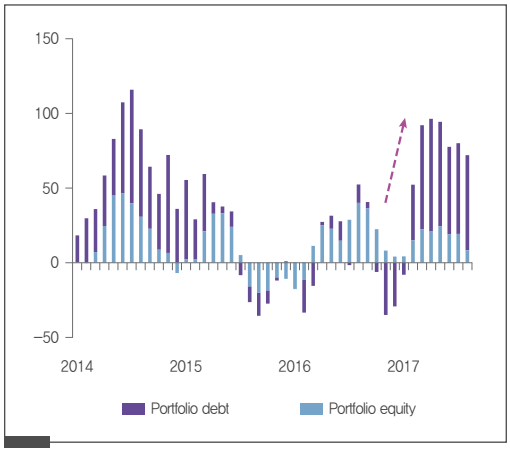
(단위: %)



주: GDP 대비 비율
자료: IMF

[그림 19] 대신흥국 해외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

(단위: 십억달러)



주: 3개월 이동평균
자료: IMF

⊙ 이러한 때 금융긴축이 예상치 못한 돌발적 충격을 야기할 가능성

-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인식과는 달리 금융완화정책의 효과가 세계경기에는 미약하고 오히려 각국의 부채를 급증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을 가능성
- 이는 금융긴축이 과도한 민간부문의 이자지출 증가, 신흥개도국의 자본유출 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

마. 전 망

민간투자 확대에도 전체 민간지출은 완만히 회복할 전망

⊙ 기술업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신수요 창출이 기대

- 민간투자가 기술업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세계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요 창출 기대
- 금융시장 활성화, 과잉설비 축소 등도 기업활동에 우호적

⊙ 반면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임금상승이 부진하여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단기간 내 높아지기 어려울 전망

- 2014~2017년 상반기 중 OECD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도는 1.1~1.6%p (경제성장률 1.8~2.5%)

⊙ 민간지출 회복에 따라 세계경제도 완만히 개선 전망

– IMF(2017. 10월)는 세계경제성장률이 2017년 3.6% → 2018년 3.7%, 세계은행(2017. 6월)은 2.7% → 2.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국제금리 상승의 불확실성을 비롯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

⊙ 향후에도 국제유가 안정,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동반 성장세, 임금상승세 확대 등의 현상은 성장 모멘텀의 긍정적 신호

– 국제유가의 안정은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안정적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여, 세계경제성장률 상승과 세계무역량 신장에도 기여

– 만약 임금상승세가 확대된다면 민간소비를 자극하여 투자와 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성장이 가속화될 것

⊙ 반면 미국 연준 등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과도한 충격으로 나타나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유의

– 국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인해 각국의 민간지출이 위축될 수 있으며, 신흥개도국의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밖에도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급락 재현, 저물가 지속 등이 누적된다면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

Ⅳ

중국 사드관련 경제조치 영향과 향후 과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김종혁 경제분석관** 연락처 **788-4656**

최근 중국과의 사드관련 갈등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중국 사드관련 경제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매출감소가 발생

⊙ 10월 양국 외교당국 간 합의문 발표에 이어 11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관련 정치적 갈등이 완화되는 양상

– 최근 한·중 간 외교당국은 합의문을 발표하여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APEC 정상회담을 통해 갈등관계가 봉합되는 국면에 진입

⊙ 사드배치 이후 관광업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에서 영향이 발생

– 중국인 방문객수가 급감함에 따라 관광수입이 감소하였고, 숙박업·면세업 등 관련산업에도 영향을 미침

⊙ 2017년 1~9월 기간동안 중국인 방문객 감소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에 약 7.45조 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

– 다만, 중국外 국가 관광객 증가와 對중국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경제 전체에 미친 실제 감소규모는 이보다 적을 가능성 존재

중국의 경제조치 수준은 대상국과의 교역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며, 경제조치를 당한 주요국은 교역국 다각화 등으로 대응해왔음

⊙ 중국은 미국 등 교역규모가 큰 국가에 대해 유사한 정치분쟁 사안을 두고 상대적으로 미약한 반응을 보이는 특징을 지님

–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0.4%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경제조치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

⊙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의 경우 중국外 아시아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경제조치에 대응

– 非중국인 방문객을 적극 유치한 결과 지난해 방일 외국인 방문자수가 138만명 증가하는 등 관광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예년수준의 관광수입을 회복

향후 유사한 형태의 경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업과 수출 등 관련 분야에서 다각화를 통해 특정 교역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

⊙ 관광업·숙박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정부지원을 다각화하고 신시장 개척을 장려하여 유사한 형태의 경제조치 발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 아시아국가에 대한 비자발급조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 유치를 장려하고, 중소 면세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정치분쟁 리스크로 인한 부실기업 발생 가능성을 낮출 필요

01
중국 경제조치의 영향

가. 최근 중국과의 관계개선 상황

2017년 10월 31일 한·중 외교당국은 「한중 관계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결과」를 발표하고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

⊙ 한국측은 사드배치의 목적을 설명하고 중국측은 한국측 입장에 "유의"함을 표명

– 중국측은 사드 체계 반대 입장을 재천명하였으나 양국간 군사채널을 통해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으로 전환

⊙ 한중간 교류협력을 모든분야에 걸쳐 정상적인 궤도로 회복시켜나갈 것을 합의

– 양측 모두 한중간 교류협력이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함으로써 향후 민간부문 교류협력 회복가능성을 높임

11월 APEC 한·중 정상회담 등 추가적인 협력관계 모색을 통해 양국간 긴장관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과거 주요국과의 정치분쟁으로 인한 긴장관계를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완화한 뒤 이와 관련된 경제조치를 해제하는 경향을 보임

– 2016년 일본과 중국은 아베-시진핑 간 정상회담을 통해 센카쿠 열도 관련 분쟁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억제하기로 합의

–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기점으로 미·중 간 적대관계가 협력관계로 전환되어 중국의 대외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

⊙ 11월 실시된 APEC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사드관련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광업 등 민간부문 경제교류 역시 예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

– 한·중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합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 한국대사와 중국 외교부 장관 간 만남 등을 통해 관계개선의 분위기 조성

– 한·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경제적 교류협력 회복이 탄력을 받을 전망

나. 중국의 사드관련 경제조치 이후 산업현황

중국의 경제조치는 관광업을 중심으로 일부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침

⊙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수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중국인 방문 감소에 기인

– '17. 9월 외국인 방문객은 전년동기대비 약 44.4만명 감소했으며 이중 85.6%인 38.0만명이 중국인 방문객 감소분

– 한국방문 외국인(만명): ('15. 9월)118.2 → ('16. 9월)149.9 → ('17. 9월)105.5

– 한국방문 중국인(만명): ('15. 9월)56.8 → ('16. 9월)69.9 → ('17. 9월)31.9

⊙ 중국의 사드관련 경제조치 이후 숙박업의 경기실사지수(BSI)가 하락

– 쇼핑 등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중국인 관광객 특성상 관광객 감소의 파급효과는 숙박업 등 관련 산업으로 이어질 가능성

– 숙박업 매출BSI(실적기준, p): ('15. 10월)65 → ('16. 10월)110 → ('17. 10월)68

⊙ 국내 면세산업의 대중국 매출의존도는 약 64%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감소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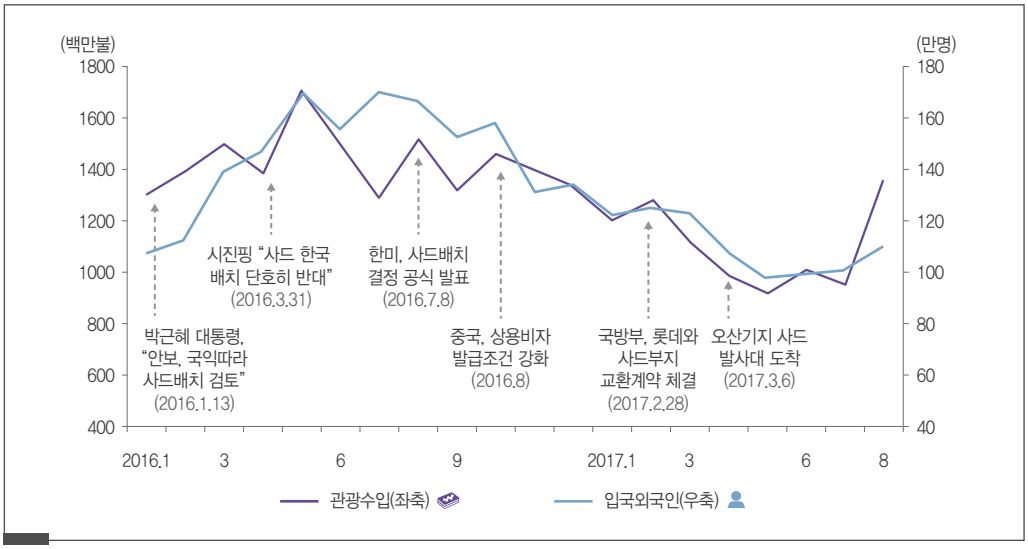
– '17. 2월 사드부지 확정 이후 인천공항 면세점의 對중국인 매출은 627억 원에서 455억 원으로 감소

[표 1] 사드배치 관련 중국 경제조치 현황

분야	주요내용
여행 · 관광	• 상용비자 발급조건 강화 • 저가 관광상품 규제 •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 크루즈선 한국행 운항노선 축소 • 중국여행사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 압력
문화 · 방송	• 한류스타 공연 취소 및 중국내 방송 편집 • 한중 합작영화 개봉연기 및 제작 중단 • 조XX, 백OO 등 클래식 공연 취소 • 한국 드라마 중국내 방송 지연 • 중국내 한국산 게임에 대한 사전 인증 강화
교역	•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 한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일부 한국산 식료품 · 화장품 수입 불허(라면, 김, 음료 등) • 한국산 설탕 세이프가드를 위한 조사 착수
직접투자	• 중국내 한국기업 세무조사 강화 • 중국내 한국기업 관련 매장 및 공장 안전점검 강화 • 한국 조선업체와의 선박 발주 협상 취소 • 제주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대규모 의료단지 개발사업 지연

자료: 한국은행 및 언론기사 참조

[그림 1] 최근 외국인 방문객 및 관광수입 추이



자료: 법무부, 한국은행

한·중 간 투자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수출·입 등 교역규모는 증가

⊙ 한국의 대중 투자규모 및 중국의 대한 투자규모가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 등 투자위축 요인 존재
- 한국 對중국 투자규모(백만불): ('16. 2분기)845 → (3분기)627 → (4분기)1,131 → ('17. 1분기)596 → (2분기)468
- 중국 對한국 투자규모(백만불): ('16. 2분기)332 → (3분기)955 → (4분기)386 → ('17. 1분기)163 → (2분기)315

⊙ 중국에 대한 수출 및 수입은 지난 3년간 감소추세를 지속하다 2017년 들어 큰폭의 상승세로 전환

- 중국의 경제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은 품목은 주로 설탕, 화장품, 식품 등 특정 제품에 집중
- 對중국 수출증감률(%): ('14)-0.4 → ('15)-5.6 → ('16)-9.3 → ('17.1~9월)13.4
- 對중국 수입증감률(%): ('14)8.5 → ('15)0.2 → ('16)-3.6 → ('17.1~9월)14.0

다. 중국 경제조치에 따른 국내 관련 산업 매출감소규모 추산

2017년 1~9월 기간동안 중국인 방문객 감소로 인해 관광업과 숙박업 등에 약 7.45조 원의 매출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월별 중국인 방문객 1인당 지출경비[1] 및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월별 중국인 방문객수를 바탕으로 지난 9개월간 총 매출감소액을 추산

- 2016년 기준 중국인 방문객의 1인당 지출경비는 약 2,059.5달러로 전체 국가 평균 1,625달러를 상회하여 소비한 것으로 파악
- 2017년 1~9월 간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36.6만명, 총 329.4만명 감소

⊙ 서울과 제주도 등 특정지역의 쇼핑 및 숙박 관련 업종에 매출감소가 집중되었을 것으로 추정

- 전체 감소규모 추산액 중 쇼핑 부문에 약 4.93조 원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숙박업에도 1조원 가량의 매출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중국인 방문객 1인당 쇼핑에 대한 지출 경비는 1,362.2달러로 전체 지출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1%에 달하며, 숙박에 지출하는 비중 역시 15.0%로 적지 않은 수준
- 지난해 외국인 방문지역 중 서울과 제주도 비중이 98.2%에 달하였음을 감안할 때 매출감소 영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표 2]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련 산업 매출감소규모 추산결과

(단위: 조원)

분야	쇼핑	숙박	식음료	교통	총매출감소규모
매출감소액	4.93	1.12	0.83	0.03	7.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관광수입 다각화 등에 의해 경제전체에 미친 실제 매출감소규모는 이보다 적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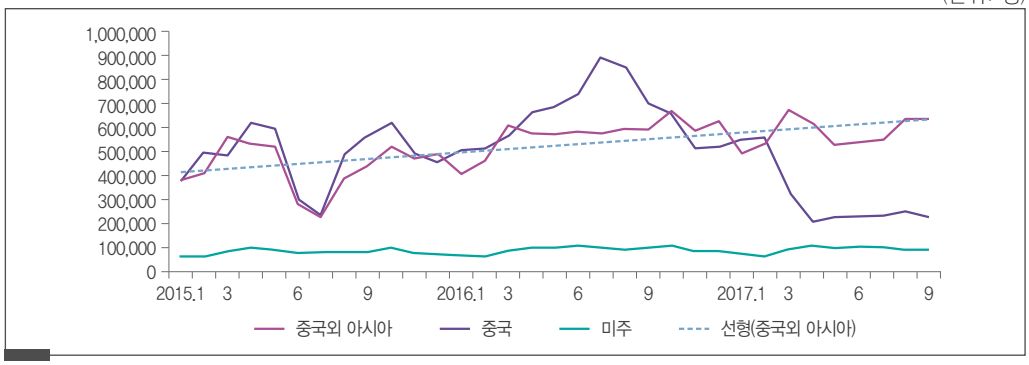
⊙ 중국외 아시아 및 미주 방문객의 꾸준한 증가로 중국인 방문객 감소에 의한 매출감소 중 일부분이 상쇄되었을 가능성

- 중국인 방문객(월평균, 만명): ('15)47.8 → ('16)65.1 → ('17.1~9월)31.4
- 중국外 아시아 국가 방문객(월평균, 만명): ('15)43.6 → ('16)57.1 → ('17.1~9월)57.7
- 미주 국가 방문객(월평균, 만명): ('15)8.1 → ('16)9.3 → ('17.1~9월)9.4
- 다만, 전체 외국인 방문객 1인 지출경비는 1,625.3달러로 중국인 방문객(2,059.5달러)에 비해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극복에 한계 존재

1)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17.2)에서 집계된 중국인 1인당 평균지출경비와 전체 외국인 월별 평균 지출경비를 바탕으로 계산

[그림 2] 중국과 여타 국가의 관광객 변화추이

(단위: 명)



자료: 한국관광공사

02

주요국의 대응사례

가. "달라이 라마 효과"와 중국 경제조치의 특징

"달라이 라마 효과"는 대상 국가에 대한 중국의 무역 의존도에 따라 상반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지님

⊙ "달라이 라마 효과"란 국제무역에서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인 국가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하는 경제조치의 영향을 뜻하는 용어

– 한 국가의 정상급 지도자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접견할 경우 對중국 수출이 평균 8.0~16.9%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에서 최초 사용[2)]

⊙ 중국과의 교역량이 큰 국가의 경우 구체적인 경제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반면 교역량이 작은 국가의 경우 세부적인 경제조치가 시행되는 양상을 보임

– 미국의 경우 2001~2016년 중 대통령이 총 7차례 달라이 라마를 접견하고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미중 수교 이후 37년만에 최초로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중국 정부는 경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엄중한 우려를 표하는 선에서 그침

– 독일의 경우 2007년 메르켈 총리가 달라이 라마를 접견한 뒤 중국 정부는 재무장관 회담을 취소했을 뿐 경제조치를 취하지 않음

2) Fuchs, A. and N-H. Klann, 2013, "Paying a Visit: The Dalai Lama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1, pp.164-177.

– 이는 각국 정상이 달라이 라마를 접견한 후 중국 정부가 2008년 에어버스 150대 구매를 취소한 프랑스 사례 및 2012년 80억파운드 규모의 투자계획을 취소한 영국 사례와 상반되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서 큰 규모의 추가적인 경제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제한적

⊙ 한·중 간 교역규모는 중·일 간 교역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가적인 경제조치는 중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상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0.4%로 가장 높은 수준(2016년 기준)

– 한·중 간 특수한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경제조치가 취해질 경우 중국 입장에서도 대체 교역국을 발견하기 쉽지 않을 전망

⊙ 對중국 수출규모는 경제조치 시행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관광업과 관련된 특정 분야를 제외할 경우 중국 경제조치로 인한 피해규모는 제한적

– 2017년 들어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증감률은 13.4%로 지난 2년 간의 감소추세에서 상승세로 전환

– 2017년 1~9월 메모리 수출 증감률이 전년대비 78.5%에 달하는 등 제조업 수출이 對중국 수출회복을 주도

[표 3] 한국 및 주요국의 대중국 교역량 추이

(단위: 십억달러, 2016년 기준)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수출	158.7	132.4	86.1	22.5	18.6	145.2
수입	95.7	388.6	66.0	24.9	56.6	129.5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0.4	8.6	5.7	1.5	1.2	9.5

자료: KITA

나. 일본과 대만의 대응 사례

일본은 중국인 방문객에 대한 비자 면제, 교역국 다변화, 수출제품 고품질화 등을 통해 중국 정부의 경제조치에 대응

⊙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주변 민간 소유 섬을 구입하여 국유화를 발표한 후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중국내 반일감정이 고조

– 일본의 對중국 수출규모(십억 달러)[3]: ('11)194 → ('12)177 → ('13)162

– 방일 중국인 방문자수(만명)[4]: ('11)104 → ('12)142 → ('13)131

3) CEI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4) 일본정부관광국(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 일본정부는 중국인 방문자에 대해 단기 관광비자를 면제하고 엔화 약세 등에 힘입어 중국 제외 아시아 국가 방문자를 적극 유치

– 방일 외국인 방문자수(만명): ('14)240 → ('15)499 → ('16)637

⊙ 또한, 희토류 수출금지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승소 및 희토류 수입 다변화로 중국 경제조치의 충격을 최소화

– 2012년 6월 일본 정부는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고 2014년 3월 WTO는 이를 무역기구 규정 위반으로 판정

– 베트남·호주·인도 등 희토류 생산국과 협력하여 광산을 개발하는 등 희토류 수입경로를 다변화한 결과 일본의 對중국 희토류 수입 의존도가 2010년 82%에서 2013년 62%로 하락

⊙ 일본제품 불매운동에도 불구 중국수입시장에서 일본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회복

– 중국 수입시장 내 일본산 제품 비중(%): ('12)9.78 → ('14)8.29 → ('16)9.53

대만은 중국外 아시아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펼쳐 중국의 대만여행 제한 조치에 대응

⊙ 2016년 1월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진보 성향의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주석 차이잉원(蔡英文)이 총통 선거에 당선된 후 중국정부는 대만여행 제한조치를 시행

– 2016년 2월 중국 정부는 대만으로 개인 자유여행을 떠날 수 있는 출발지를 기존 47개 도시에서 베이징 등 4개 도시로 축소

– 대만 방문 중국인 방문자수는 2015년 418만명에서 2016년 351만명으로 8년만에 감소세로 전환

⊙ 대만 새정부는 아세안(ASEAN) 10개국 등 아시아 18개국을 대상으로 경제교류를 강화하는 '신남향(新南向)' 정책기조를 수립

– 대상국과 무역·투자규모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인적 교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약 1,596억 원의 예산을 편성

–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 1년 기한의 비자면제조치를 시행하고 한국에 대만 관광협회 사무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중국 외 아시아국가 관광객을 적극 유치

⊙ 그 결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국가의 대만 방문자수가 증가하여 중국 방문자수 감소분을 상쇄했으며, 대만의 대중국 관광수입 의존도 역시 하락

– 대만 방문 전체 아시아국가 방문자수는 2015년 947만명에서 2016년 96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외국인 방문자수 역시 2015년 1,044만명에서 2016년 1,069만명으로 증가

– 대만 방문 전체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은 2015년 40.1%에서 2016년 32.9%로 하락

03
향후 과제

관광업과 유통업 등 관련산업에서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

⊙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관광 교역국에 대해 비자면제조치를 완화하고 관광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관광업의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

-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국가의 국내 방문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중국인 관광객 감소분을 충분히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
- 인도 및 아세안 국가 등에 대해 비자발급절차를 완화하거나 단체관광비자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숙박업·유통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여 외부충격에 의한 일시적 매출감소로 부실기업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필요

- 중소 면세사업자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면세점 개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과당경쟁을 방지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국내 숙박시설 이용시 면세혜택을 확대

⊙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개별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필요

- 여행사의 단체여행상품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입국하는 자유 관광객은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조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
- 관광통역안내사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지역별 관광상품 개발을 독려하는 등 개별 관광객에 맞춘 유연한 관광업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5)]

주요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정치적 노력과 함께 수출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다각화

⊙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유지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므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

- 특히, 한·중 간 직접투자 및 무역은 정부 간 관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

⊙ 이와 함께 필리핀, 인도네시아, 남미권 등 신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경제조치로 인해 수출 관련 기업의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유의

- 수출시장 다각화를 통해 특정국과의 정치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가 수출관련 기업의 부실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5) 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주소와 개선과제"(2017.11)

nabo Economic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2017년 11월호 통권 제61호

발행일 2017년 11월 23일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 국회예산정책처, 2017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nabo Economic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6-001572-06